



SEPTEMBER 2005

A photograph of four people walking down the stairs of an airplane. From left to right: a man in a black jacket and striped shirt, a woman in a tan jacket, a man in a red cap and black jacket waving, and a man in a red and white jacket. The background shows the tail of a blue and red airplane.

미국에서 만납시다  
**SEE YOU**  
IN THE  
**U.S.A.**

U.S. DEPARTMENT OF STATE / 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        |                                                                                        |
|--------|----------------------------------------------------------------------------------------|
| 편집자    | Thomas E. Cooney                                                                       |
| 편집간사   | Rebecca Ford Mitchell                                                                  |
| 기고편집자  | Merle David Kellerhals, Jr.<br>David A. Denny<br>Jacquelyn S. Porth<br>Charlene Porter |
| 주제전문가  | Samuel Moncrief Anderson<br>George Burkes<br>Jeffrey W. Mason<br>Vivian R. Stahl       |
| 사진연구자  | George Brown<br>Tim Brown<br>Gloria Castro<br>Barry Fitzgerald<br>Ann Monroe Jacobs    |
| 표지디자이너 | Christian Larson                                                                       |
| 발행인    | Judith S. Siegel                                                                       |
| 편집국장   | Richard W. Huckaby                                                                     |
| 제작매니저  | Christian Larson                                                                       |
| 부제작매니저 | Chole D. Ellis<br>Sylvia Scott                                                         |
| 편집위원   | Alexander C. Feldman<br>Kathleen R. Davis<br>Francis B. Ward                           |

표지: 영국 본마우스(Bournemouth)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학생들. (Copyright Air TeamImages 2005 Photo by Colin Work)

미 국무부 국제정보프로그램국은 *e-Journal USA* 로고를 통해 미국 사회, 가치, 사고, 제도 뿐 아니라 미국과 국제공동체가 직면한 주요 사안을 점검하는 5개 전자 저널(*Economic Perspectives, Global Issues, Issues of Democracy, U.S. Foreign Policy Agenda, U.S. Society & Values*)을 발행한다. 각 저널은 볼륨(발행년수)과 넘버(당해 년도 발행호수)를 기준으로 분류된다.

매달 한 건의 새 저널이 영어로 발행되며 2주에서 4주 후 불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로 번역된 버전이 발행된다. 선정 판의 경우, 아랍어와 중국어, 기타 필요 언어로도 번역된다.

상기 5개 저널에 표현된 견해가 언제나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미 국무부는 저널 내용과 저널이 링크 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 접근가능성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러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사이트 발행자에게 있다. 저널에 제시된 기사, 사진, 삽화는 저작권 제한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미국 외부에서 복제 및 번역될 수 있다. 저작권 제한사항이 명시되었을 경우는 반드시 저널에 명시된 저작권자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

국제정보프로그램국은 웹사이트(<http://usinfo.state.gov/journals/journals.htm>)를 통해 발행될 저널 리스트와 현재 및 지난 호를 몇몇 전자포맷으로 제공한다. 관련 논평은 현지 미국 대사관이나 아래 편집사무소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Editor, eJournal USA: Foreign Policy Agenda  
IIP/T/IS  
U.S. Department of State  
301 4th St. S. W.  
Washington, D.C. 20547  
United States of America  
E-mail: [ejforpol@state.gov](mailto:ejforpol@state.gov)

## 이번 호 소개

지난 2년간 비자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은 자국 국경보호와 외국 방문객 환영이라는 두 경합 요소 사이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고 실제 이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국제교류를 증진하고 개방사회를 유지하겠다는 굳은 의지는 미국의 가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영원한 특징입니다.

최근 추진한 변경사항에는 유학 및 사업 비자 지원에 대한 신속 인터뷰 예약, 생체인식 서류 관련기술 개선, 비자신청 지원 관계자 수 증대가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미국은 한층 신속하고 안전한 국제여행을 위해 다양한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 *eJournal USA*는 여러분이 최대한 편리하게 미국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국 정부의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이 프로그램들이 다른 나라 프로그램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See You in the USA”는 엄청나게 다양한 미국 내 50개 주에서 학업 또는 사업을 하거나 단순히 관광을 즐기려는 해외 방문객을 미국이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저널에서는 먼저 국경횡단 절차와 용어를 설명한 다음, 영사와 세관국경보호관이 인터뷰 창구 반대편에서 합법적인 단기 여행자를 결정하는 일에 대해 1인칭 관점으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해외 방문객을 위한, 다소 독특한 미국 여행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저명한 음악사학자 존 에드워드 하세(John Edward Hasse)는 여행자에게 미국 뮤지컬 투어를 제안합니다.

계속해서, 국제교환학생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입학승인과 미국대학 교육비 충당 방법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고 국제 학생들이 미국에서 보낸 시간을 이야기로 전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관계자와 비즈니스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사업여행 비자 획득을 둘러싼 여러 사안에 대해 솔직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칠레 산티아고 및 홍콩 출신의 기업간부 2명이 9/11 테러 이후 미국방문 경험을 전해줍니다.

저널 끝에는 관련 읽기자료와 유용한 인터넷 사이트 목록이 제공됩니다.

이번 호 *eJournal USA*와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편집부



## 미국에서 만납시다 SEE YOU IN THE U.S.A.

미국무부 / 2005년 9월 / 제10호 / 제2권

<http://usinfo.state.gov/journals/journals.htm>

### 4 인사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

### 5 비자 암호해독

미국 방문 희망자 중 절대 다수가 실제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십시오.

**생체인식:** 눈 색깔에서 눈 스캔까지

**신발 벗고, 팔 옆으로?:** 새로운 여행 규칙

### 12 박스: 비자사진 요건

### 14 비자창구 반대편에서

JON PIECHOWSKI, 주 카이로 영사 담당관

비자 담당관이 세계 최대 대사관 중 하나인 카이로 미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 15 국경보호관: 가장 먼저 보호, 가장 먼저 환영

KATHLEEN FAWS, 워싱턴 항 세관 및 국경보호

담당관

미국 입국자를 결정하는 담당관이 자신의 일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 16 박스: 수치로 본 미국여행

### 관광객 정보

### 17 모두에게 특별함을

미국은 거대한 영토와 지리 및 사회적으로 다양한 국가입니다. 미국 탐험에 나선 분들을 환영합니다.

### 18 미국 음악관광

JOHN EDWARD HASSE 박사, 스미소니언

미역사박물관 관장

음악사학자가 미국여행 계획으로 만국 보편 언어인 음악 전당 방문을 제안합니다.

### 24 사진 갤러리: 미국의 보물

사진을 통해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또 다른 미국을 살펴봅니다.

### 유학생 정보

### 30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미국 알기

미국은 매년 기쁜 마음으로 50만 명 이상의 국제학생을 맞이합니다.

### 33 일생의 기회: 미국대학 국제입학

DALE GOUGH, 미대학 등록 및 입학담당관

협회(AACRA) 국제교육국장

전문가가 미국대학 입학절차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 36 미국 고등교육: 재정적 측면

NANCY W. KETEKU, 가나 아크라 주재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지역교육자문 조정역  
미국교육은 투자 가치가 우수할 뿐 아니라 다양한  
학비 재정확보 옵션까지 제공합니다.

### 39 유학생 경험담

세 명의 국제학생이 미국에서 공부하며 몸소 체득한  
것과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결정”

짐바웨 Nyasha Kanganga, 미네소타 세인트 폴 성  
캐서린대학 학부생,

#### • “환상적 경험”

인도 Arnab Basu,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카네기 멜런  
대학원생

#### • “엄청난 기회”

벨라루스 Pavel Repyeuski, 전 뉴욕 이타카 대학  
학부생

### 사업여행가 정보

### 42 오늘날 미국에서 사업하기

정부 관계자와 기업 경영진이 사업여행 촉진 및  
상업교류 증진을 위한 최근 노력에 대해 논의합니다.

- Douglas Baker, 상무부 용역담당차관보;
- Elizabeth Dickson, 잉거솔-랜드  
세계이민서비스자문역;
- Janice Jacobs, 국무부 비자서비스 부차관보;
- Randel Johnson, 미상공회의소 부소장;
- Michael Neifach, 국토안전부이민정책국장;
- Alexander Feldman, 국무부국제정보프로그램조장관

### 사업여행 경험담

두 명의 기업 간부가 최근 사업여행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 49 “문제 없이 입국하고 문제 없이 출국”

Carlos Vanni, Bac Florida Bank N.A., Santiago, Chile

### 50 “안전 제고, 불편 최소화”

Jimmy Chan, RJP Limited, Hong Kong



## 온라인 비디오

오늘날 미국에서 사업하기  
: 정부와 기업간 토론

- 여행 촉진을 위한 공조
- 미국 비자/입국 사안
- 사업비자 취득
- 지원이 필요할 때

<http://www.usinfo.state.gov/journals/itps/0905/ijpe/ijpe0905.htm>

#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장관



U.S. Department of State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매년 수 백만의 외국인이 미국을 찾습니다. 관광, 사업, 이민 등 방문 목적은 다양하지만 모든 개인이 문화, 교육, 경제를 아우른 미국의 삶 전체를 한층 풍요롭게 해 줍니다. 미국을 방문하신 모든 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환영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국제사회 방문객이 미국 문화를 탐험하고 미국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미국의 곳곳을 둘러보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는 미국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역사, 언어, 아이디어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부시 대통령과 저는 존중과 이해에 바탕을 두고, 국가와 배경, 믿음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관계를 발전시킨다면 우리 모두 한층 안전하고 나은 세계를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이루기 위한 성공의 열쇠는 개인간 연계와 이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과 사람 대 사람간 교류가 엄청난 변혁을 몰고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삶이 영원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언제나 방문객들을 환영해 왔습니다. 우리는 방문객과 내국인 구분 없이 국경 내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방문객이 이 위대한 나라에 가져오는 풍성함과 다양성을 앞으로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

# 비자 암호해독

본 기사는 기본적인 비자발급 절차와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 생체인식 관련 정보, 최근 도입된 여행자 관련 규정, 미국여행 관련 통계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국가가 그러듯, 미국 또한 자국 방문자에 대해 신분, 입국일, 출국일 등의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 비자 발급이 바로 이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외국인은 비자가 있어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방문을 희망하는 사람들 절대 다수가 실제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 2004년, 미국비자 신청자 중 4분의 3 가량이 실제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유학비자 신청의 경우, 그 보다 많은 80% 가량이 발급승인을 받았습니다.
- 지난 해, 미국은 사업 및 관광 방문자 수가 12%, 비이민 방문자 신분으로 온 학생 수가 4% 증가하였습니다.

## 비자

비자는 여러분이 특정 국가에 입국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승인 증명입니다. 미국의 경우, 법에 따라 국무부가 비자발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무부 영사가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간단한 인터뷰를 실시한 뒤 비자발급 적격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절차를 “adjudication(비자심사)”라 부릅니다. 모든 비자 신청건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영사입니다.

신청한다고 반드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듯, 비자를 소지했다고 미국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영사가 여러분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여러분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자국에서 미국 입국항으로 여행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결정했음을 말해줍니다.



입국항에서, 이민관이 여러분의 미국 입국을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미국도안보부 이민관만이 입국승인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 비자를 소지한

여행자가 입국 거부를 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 절차

비자발급과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청서 양식 DS-156 [<http://evisaforms.state.gov>]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국내에 있는 미 대사관 [[http://travel.state.gov/travel/tips/embassies/embassies\\_1214.html](http://travel.state.gov/travel/tips/embassies/embassies_1214.html)]에 연락해 인터뷰를 예약하십시오. 신청서, 여권, 사진, 필요 서류를 갖추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해 미국 방문목적에 관한 인터뷰를 받으십시오. 비자신청 수수료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현재 수수료는 100달러입니다. 비자를 소지하신 분은 미국 입국항까지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항에서 담당자가 여러분 여행서류를 재점검한 다음 입국을 승인합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공격 이후 이 기본 절차는 거의 변경된 것이 없지만, 안보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에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 16세에서 45세 사이의 모든 남성은 DS-157 양식을 추가로 작성하여 이전 여행이력과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영사는 다른 신청자에게도 이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학생과 교환방문자는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 보완 신청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본인

입학/복학을 허락한 미국 내 학교나 기관을 통해 SEVIS(10페이지 참조)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가 영사와 대면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이 전에는 신청자가 직접 나와야 한다는 요건을 영사가 면제 해 줄 수 있었고 일부 여행사 직원이 고객을 대신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부는 지난 3년에 걸쳐 영사의 수를 대폭 늘리고 인터뷰 예약 시스템을 개선해 왔습니다.
- 비자 파일, 법 집행 및 감시자 목록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의 등록을 추적하기 위해 기술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기술, 데이터베이스 통합, 시스템 문제교정이 극적으로 개선되고 백로그는 감소하였습니다.
- 2004년부터 각국 미 대사관은 유학 및 사업 여행자를 위한 비자발급 절차를 조속하게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영사과는 특별 예약시간을 설정하였고 현재 이 두 종류의 비자를 조속히 처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 미국과 다른 많은 국가가 위조를 방지한(tamper-resistant) 기계판독(machine-readable) 비자, 여권, 기타 출입국 서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문 같은 생체인식 식별자와 디지털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상업용 선박과 항공기는 승객 전원의 신원정보를 미국 이민관에게 제공합니다.
-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데 비자가 필요한 승객의 경우, 다른 목적지로 가는 중에 미국에서 잠시 멈춘 항공기 탑승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미국비자 발급을 위한 요건과 비용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유사하며, 비자 필요성, 추가 수수료 청구, 규제적용은 타국과의 상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요건은 다른

나라가 자국 여행을 원하는 미국 시민에게 부과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 사전 계획과 대기시간

최근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현저히 짧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여행계획에 착수하는 즉시 비자신청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양식 작성, 영사에게 제시해야 할 서류 구비,

인터뷰 예약 등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신청자의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자발급 절차와 시간 또한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일을 하려는 사람은 추가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관광 신청자보다 많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뷰 예약을 위한 평균 대기시간도 국가마다 다양합니다. 미 대사관들은 [http://travel.state.gov/visa/temp/wait/tempvisitors\\_wait.php](http://travel.state.gov/visa/temp/wait/tempvisitors_wait.php) 에 각 국가별 대기시간을 게시합니다. 유학 또는 사업 방문자의 경우 신속예약(expedited appointment)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무부는 사람들이 비자신청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저널 끝 부분에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출처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 인터뷰(면접)

비자 인터뷰를 위해서는 적절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작성한 신청서, 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유효한 여권, 규정(12페이지 참조)에 맞는 사진을 구비하셔야 하며, 미국 체류를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 올 의도라는 점을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신청하신다면, SEVIS I-901 수수료 [<http://www.ice.gov/graphics/sevis/i901/fag2.htm>] 납부영수증 또한 구비하셔야 합니다.

영사는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의 미국 방문목적에 대해 질문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합니다. 나아가, US-VISIT 프로그램(10페이지 참조) 보안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여러분의 두 엄지손가락을 특별 무인크 디지털 스캐너로 기록하고, 비자 무자격자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람의 성명과 기록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여러분 신원을 조회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비자 신청에 대해 승인 또는 거절 여부를 통보 받습니다. 승인되었을 경우 대부분 1주일 내에 비자가 전달됩니다. 하지만, 보안 문제가 있을 경우 추가 검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몇 주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발급이 거절되었을 경우 언제든 추가 서류를 구비해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신청 할 때마다, 환불이 되지 않는 비자신청 수수료 10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 비자 거절

영사는 개별 신청자 각자의 상황을 살펴보고 거기에 준한 미국 이민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비자거절 사유는 신청자가 본국과 견실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미국에 불법체류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거절된 경우를 흔히 214(b)라고 부릅니다. “관계(ties)”란 신청자를 신청자의 거주 본국에 묶어주는 삶의 다양한 측면을 말합니다. 신청자는 해외에 본인 거주지가 있으며 이 거주지를 포기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http://www.ustravvisas.org/visa/visadenials.asp>])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임시 미국 체류가 끝나면 미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제시함으로써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국에 일자리가 있거나 교육 프로그램 재학

증임을 제시해야 합니다. 가족이 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택 또는 현지 은행에 저축해 둔 금액 등 상당한 재산이 본국에 있다는 점 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 신청자가 영사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할 명확한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비자발급을 보장하는 일련의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례에 대한 사실정보를 반드시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이 해외거주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비자발급이 거절되었을 경우,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거나 여러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를 수집했다면 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신청수수료는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영사는 국가마다 “관계”를 규정하는 문화, 사회적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젊은 신청자들이 실질적인 재정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을 수 있음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사들은 비자발급 과정에서 이 모든 상황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염병 또는 범죄이력이 있거나 테러활동과 연계되었을 경우 등의 사유로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여러분이 비자 암호를 해독하는데 도움을 줄 일부 용어입니다. 각 용어에 대해 정의를 제공한 다음, 이어서 한층 포괄적인 설명이 제공됩니다.

## 비자관련 용어



AP/WWP Photo by Sergey Ponomarev

**생체인식(Biometrics):** 생체인식은 홍채 내 복잡한 패턴의 아이스캔(eye scan)이나 지문과 같이, 개개인 고유의 생물학적 특성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생체인식 식별자(identifier)는 타인이 여러분 신분 가장하는 행위를 극도로 어렵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보호해줍니다. 여행서류가 도난 또는 복제되었을 경우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생체인식 식별자는 여권이나 비자를 지닌 사람이 해당 여권이나 비자를 발급 받은 본인임을 보장해 줍니다.

[<http://www.dhs.gov/dhspublic/display?content=4542>]



AP/WWP Photo by Bobbie Hernandez

**월경카드(Border Crossing Card/ BCC):** 멕시코와 미국간 국경 횡단증으로, 유자격 여행자가 B1/B2(사업/관광) 비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을 소지한 사람은 국경 이민관리소를 용이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증에는 많은 보안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10년간 유효합니다. 흔히 “레이저 비자”라 불리기도 합니다.

2001년 테러공격이 있기 전에도, 미국 법에 따라 모든 BCC는 반드시 지문과 같은 생체인식 식별자를 포함하고 기계가 판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 후, BCC 프로그램은 미국의 안전한 출입국 절차에 대한 모형이 되었습니다.

[[http://travel.state.gov/visa/immigrants/info/info\\_1336.html](http://travel.state.gov/visa/immigrants/info/info_1336.html)]



AP/WWP Photo by Jan Bauer

**전자여권(E-Passport):** 전자여권은 기계판독 첨단 여권으로, UN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에 따라 여러분의 바이오그래픽 정보와 생체인식 정보(12페이지 참조)를 저장할 수 있는 집적회로(IC) 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전자여권은 칩에 소유자 안면초상 디지털 이미지만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안면인식을 사용해 실제 소유자와 비교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여권위조에 대한 강력한 억제수단이 될 것입니다.

뒤 표지에 내장된 칩은 바이오그래픽컬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이 정보가 기계판독 여권 바이오그래픽 데이터 페이지에 있는 정보와 비교됩니다. 정보를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제지하려는 예방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서명은 칩에 저장된 데이터가 변경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줍니다.

이 지능화 칩은 10cm 이내에서 판독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칩 데이터를 비밀리에 스키밍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은 여권에 스키밍 방지 기능을 포함하였으며, 따라서 여권이 닫혀있을 때 스키밍되는 위험을 줄일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은 입국장에서 여권이 판독될 때의 스키밍 또는 도청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BAC(Basic Access Control) 이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BAC는 칩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권 데이터 페이지에서 기계판독 구역 문자가 먼저 읽히도록 한다는 점에서 PIN과 유사합니다.

미국은 2006년 10월 26일까지 국내 모든 여권발행기관에서 전자여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VWP(Visa Waiver Program)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 또한 같은 날까지 전자여권 발행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6년 10월 26일 이전에 발행된, 기계판독 VWP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굳이 전자여권으로 대체하지 않고 정상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cbp.gov/xp/cgov/import/commercial\\_enforcement/ctpat/fast/](http://www.cbp.gov/xp/cgov/import/commercial_enforcement/ctpat/fast/)]

**자유안전교역(Free and Secure Trade/ FAST):** 조속하고 안전한 국경횡단 상업교통 흐름을 위해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전자 FAST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3국은 공동 위험관리 원칙, 공급망 안전, 산업 협력관계, 비즈니스 선적 검사 및 통과를 위한 고도의 기술을 조정합니다.



AP/WWP Photo

이 자발적 정부-기업 프로그램은 알려진, 저위험 참여기업이 전용차선과 검사축소를 통해 자사 선적에 대해 신속한 육상국경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가된 운송회사 트럭이어야 하며 제품은 인가된 수입업자 제품이어야 합니다. 나아가, 기사는 유효한 FAST 상업기사 신분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멕시코에는 추가 요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제품이 인가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이어야 하며 물류창고, 브로커, 기타 취급자를 경유해 움직이기 때문에 고도의 안전봉인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http://www.dhs.gov/dhspublic/interapp/content\\_multi\\_image/content\\_multi\\_image\\_0021.xml](http://www.dhs.gov/dhspublic/interapp/content_multi_image/content_multi_image_0021.xml)]

**기계해독여권(Machine Readable Passports/ MRPs):** 기계판독 여권(MRP)은 여러분이 VWP(Visa Waiver Program) 참가국 시민이라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여권은 암호화 된 유형의 두 라인에 바이오그래픽컬 데이터를 담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관국경순찰관은 전자 판독기를 통해 신속하게 여러분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데이터는 일반 여권에 인쇄된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여러분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여권번호, 발급일과 완료일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 MRP는 여권 크기, 사진 요건, 데이터 필드 구조와 관련해 UN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MRP는 합법적 방문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한편, 입력된 정보를 법 집행 데이터베이스와 신속하게 비교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이민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VWP 여행자이면서 기계판독 여권이나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채 미국에 입국한다면, 입국승인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MRP가 없을 경우 미국으로 오는 수송편에 탑승조차 허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소지한 여권이 기계판독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다면, 여러분 국가 여권당국에 문의하십시오.

[<http://www.dhs.gov/dhspublic/display?content=4499>]

**넥서스(NEXUS):** 캐나다와 미국 사이를 자주 여행하신다면, 사전 인가된 양국간 저위험 여행자를 위해 육상, 공중, 해상 국경 횡단을 간소화 해주는 기존 NEXUS 프로그램 신청을 고려해 보십시오.

신청자들은 인터뷰를 받고 생체인식 스캔을 제공하며 신원조회를 거칩니다. 특정 개인을 프로그램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미국과 캐나다 양국이 동의해야 합니다. 인가 받은 NEXUS 여행자에게는 전용 여행레인을 통해 신속하게 국경검사를 통과할 수 있게 해 주는 사진 신분증을 발급합니다.

이 자발적 프로그램은 2002년부터 이행되어 왔습니다. 단일 신청서로 미국과 캐나다 양국의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여행일 경우 NEXUS 레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행자 전원이 NEXUS 프로그램 일원이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http://www.cbp.gov/xp/cgov/travel/frequent\\_traveler/](http://www.cbp.gov/xp/cgov/travel/frequent_traveler/)]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NIV):** 관광, 사업, 학업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분들은 비이민자로 분류됩니다.

[<http://uscis.gov/graphics/services/visas.htm#non>]

#### 국가안보출입국등록제(National Security Entry/Exit

**Registration System/ NSEERS):** NSEERS는 정보부 기준에 바탕을 두고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안보우려가 높은 개인으로 확인된 비이민 방문자 특별 등록 시스템입니다.

본 프로그램에 의해, 이런 유형의 방문자들은 정기적으로 체크인하여 본인의 위치를 입증하는 한편 미국 입국조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 비자일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불법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되고 비자만료일이 경과했는데도 체류하면 안됩니다.

2001년 테러공격 이후, 비이민 방문자에 대한 완전한 출입국 기록을 구축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로 NSEERS가 도입되었습니다. SEVIS와 US-VISIT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운용 중이기 때문에, 방문자 전체

#### 주요 비이민 비자

- B-1 사업 목적의 단기방문자
- B-2 관광 목적의 단기방문자
- F-1 유학생
- F-2 F-1 해당자의 배우자나 자녀
- J-1 교환방문자
- J-2 J-1 해당자의 배우자나 자녀
- M-1 직업학교 학생
- M-2 M-1 해당자의

그룹, 예를 들어 특정국가 방문자들에 대해 적용하던 재등록 요건은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토안보부는 체류 기간동안 개인에게 추가등록 인터뷰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http://www.ice.gov/graphics/specialregistration/index.htm>]

**상호주의(Reciprocity):** 비자 발급수수료나 유효기간을 포함해 비자관련 특정 측면은 상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다른 나라가 자국 비자를 발급 받으려는 미국인에게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규정과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국가들은 흔히 시민 교환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공조합니다. 예를 들어, 2005년 중국과 미국은 자격을 갖춘 유학생, 사업 여행자, 관광객에게 다중 입국이 가능한 12개월 비자를 발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전에는, 입국이 2회로 제한되는 6개월 비자가 표준이었습니다.

[<http://travel.state.gov/visa/reciprocity/index.htm>]

**여행자신속검색안전전자망(Secure Electronic Network for Travelers' Rapid Inspection/SENTRI):** 멕시코와 미국간 국제 육상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곳입니다. 1995년, 상용여행자 교통 대기시간을 줄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SENTRI 프로그램을 통해 전용 통근레인을 개설했습니다.



AP/WWP Photo by David Maung

[[http://www.cbp.gov/xp/cgov/travel/frequent\\_traveler/sentry.xml](http://www.cbp.gov/xp/cgov/travel/frequent_traveler/sentry.xml)]

2001년 테러공격 이후 SENTRI 참여자 수는 급격히 증가해 왔고, 미국 정부는 최근 인원증대, 기술증강, 1년에서 2년으로 기간 확장 등의 조치를 통해 등록을 한층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신청자는 사전검열을 위해 전자지문을 제공해야 하며 본인, 가족, 차량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SENTRI 레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탑승한 모든 사람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생 및 교환방문자정보체계(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SEVIS):** 입국하는 모든 국제학생은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 본인의 주관 교육기관을 통해 SEVIS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SEVIS는 미국에 체류하는 학생 및 교환방문자 관련 정보를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미국방문객 및 이민자격지표기술(United States Visitor and Immigration Status Indicator Technology/ US-VISIT):** 수집합니다.



AP/WWP Photo by Gregory Smith

비자를 소지한 14세에서 79세 사이의 비이민 방문자는 VWP(Visa Waiver Program) 방문자와 마찬가지로 인종, 국적,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 US-VISIT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대부분 여행자의 경우, US-VISIT 참여절차는 미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실시하면서 시작됩니다. 비자 신청자는 특정 규격을 충족하는 사진을 제출하고 두 엄지손가락 전자 스캔을 받습니다. 미국 입국항에 도착하면, 다시 디지털 사진을 촬영하고 두 손가락을 스캔하여 비교점검을 받습니다.

나아가, 이 신원정보를 법 집행기관의 공유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범죄기록, 가명, 테러관련 관찰대상 등을 확인합니다. 도난 또는 분실 여권 관련 정보도 이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됩니다.

2004년 US-VISIT 프로그램이 115개 공항, 13개 항구, 50개 육상 출입국지에서 시작된 후 지금까지 3천만 명 가량의 여행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 책임 기관인 국토안보부는 2005년 말까지 나머지 모든 육상 출입국지에 이 입국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며, 현재 12개 공항과 2개 항구에서 유사한 출국절차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US-VISIT은 모든 사람을 위해 보안 수준을 높여주며 이민관이 신속하게 합법적인 미국 여행자를 확인 및 환영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대부분 멕시코인과 캐나다는 다른 출입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US-VISIT 등록이

면제됩니다.

[[http://www.dhs.gov/dhspublic/interapp/editorial/editorial\\_0525.xml](http://www.dhs.gov/dhspublic/interapp/editorial/editorial_0525.xml)]

[[http://www.dhs.gov/dhspublic/interapp/content\\_multi\\_image/content\\_multi\\_image\\_0006.xml](http://www.dhs.gov/dhspublic/interapp/content_multi_image/content_multi_image_0006.xml)]

[[http://www.dhs.gov/dhspublic/interapp/editorial/editorial\\_0435.xml](http://www.dhs.gov/dhspublic/interapp/editorial/editorial_0435.xml) (Multilingual Videos and Brochures) ]

[US-VISIT Step-by-Step Entry Guide (PDF, 1 page, 609 KB)]

[US-VISIT Step-by-Step Entry Guide (PDF, 1 page, 768 KB)]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VWP):** VWP는 90일 이하 기간동안 미국을 방문하는 사업여행자 및 관광객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국 동맹국간 관광을 증진하고 여행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1986년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동맹국 전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여행 목적 및 미국입국에 대한 법적 금지에 따라 VWP 국가 국민이라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VW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27개 국가는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입니다.

멕시코, 캐나다, 버뮤다의 일부 여행자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그 법적 기반은 VWP 여행자와는 다릅니다. VWP 여행자 여권 요건은 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여행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국가가 VWP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시민에 대한 상호 무비자 여행 제공, 기계판독 여권 사용, 여권도난에 대한 신속한 보고, 미국 비자에 대한 3% 이하의 거절비율, 해당국가 방문자의 낮은 장기체류 및 이민 위반율을 포함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생체인식 여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야 하며 강력한 서류보안 및 국경안보, 이민통제, 법 집행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VWP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미국의 안보나 법 집행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VWP 여행자는 기계판독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여권 발급일이 언제냐에 따라 디지털 사진이 부착된 생체인식 여권 또는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VWP 여행자는 입국 승인 전에 검사를 받으며 US-VISIT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http://www.travel.state.gov/visa/temp/without/without\\_1990.html#1](http://www.travel.state.gov/visa/temp/without/without_1990.html#1)]

**서반구여행자대책(Western Hemisphere Traveler Initiative/WHITI):** 현재까지 미국을 방문한 비이민 여행자는 인접 국가인 멕시코와 캐나다 시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과거, 양국 및 버뮤다와 미국의 관계는 무여권, 무비자, 또는 기타 국경횡단 프로그램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안보환경에서는 서반구 어느 국가에서도 미국으로 입국 또는 재입국하려는 사람은 미국 시민을 포함해 모두 유효 여권이나 기타 명시된 안전한 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국가간 교역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음 일정에 따라 신규요건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입니다.

- 2006년 12월 31일 -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카리브연안 뿐 아니라 멕시코, 캐나다, 버뮤다를 왕래하는 모든 공중 및 해상 여행에 대해 여권 또는 기타 인정 서류가 요구 될 것입니다.

- 2007년 12월 31일 - 서반구 국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공중, 해상, 육상 국경횡단에 대해 여권이나 기타 인정 서류가 요구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정되는 기타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미국은 SENTRI, NEXUS, FAST, BCC 프로그램(아래 참조)을 통해 안전한 여행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서류 옵션 창출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반구 국가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사회보장카드와 그 외 다양한 면허증이 이제는 미국 입국을 위한 대체 서류로 수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조부모, 후견인이 어린이와 함께 여행 할 경우 자신이 후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나 부재중인 부모가 아이의 국경횡단을 위임하는 공증 서한을 제시하도록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아동납치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18세 이하이며 혼자 여행 중이라면, 여러분의 국경횡단 여행을 위임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한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을 경우, 미국 입국장에서 입국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http://www.cbp.gov/xp/cgov/travel/vacation/kbygwest\\_hem\\_init](http://www.cbp.gov/xp/cgov/travel/vacation/kbygwest_hem_init)] ■

## 생체인식: 눈 색깔에서 눈 스캔까지

흔히 “생체인식(biometrics)”에 대해 잘못 알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 생체인식이란 자동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특징을 의미합니다. 초기 비자동화 생체인식은 상당히 오랫동안 여행관리 서류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소 1700년대부터, 선박 승객명단 작성자는 각 승객을 묘사하기 위해 나이, 신장, 체중, 눈 색채, 뚜렷한 특징, 안색 등을 서면으로 기록했습니다. 1800년대에 흑백사진이, 1900년대에는 컬러사진이 도입되면서 사진이 이 원시적인 묘사방법 중 상당수를 대신해 여행자 식별을 위한 일반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층 정교한 기술이 도입되면서, 특히 지금



같은 새 위협의 시대에 자동화 생체인식 식별자가 이러한 초기 방법을 대체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디지털 사진은 안면윤곽과 피부조직에 대한 지도제작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눈을 스캔하면 개인 고유의 홍채 패턴을 측정할 수 있고, 손가락 스캔에는 더 이상 롤러, 잉크, 지문카드가 따라 다니지 않습니다. 엄지 손가락을 전자 판독기에 대기만 하면 신원이 신속하게 확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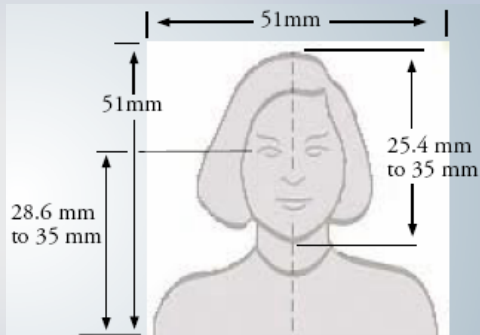
미국만이 여행서류에 생체인식을 사용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유럽연합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또한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국제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미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http://travel.state.gov/visa/immigrants/info/info\\_1336.html](http://travel.state.gov/visa/immigrants/info/info_1336.html)] ■

## 비자사진 요건

**비자 신청 시에는 서명하지 않은 독 사진을 인터뷰 때 지참해야 하며, 사진은 다음 구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원본이어야 한다. 복사 또는 디지털로 스캔 한 사진은 인정되지 않는다.
- 흑백과 컬러 모두 인정되지만 채색이 되어있어서는 안 된다.
- 크기는 51 x 51 mm 정사각형이어야 하며 얼굴은 사진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 머리 끝에서 턱 밑까지 길이가 25.4 mm 이하이거나 35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사진 밑단에서 눈까지 길이가 28.6 - 35 mm 사이여야 한다.
- 사진은 얼굴 전면부 전체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하며 눈은 뜬 채 정면을 주시해야 한다. 배경은 흰색 또는 오프화이트(off-white) 색이어야 한다.
- 짙은 안경(dark glasses)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단, 의료관련 사유로 짙은 안경을 착용해야 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일반 안경을 착용할 경우도 사진에 눈이 보여야 한다.
- 일반 의상을 착용해야 한다. 모자 또는 다른 것을 머리에 착용해서는 안 된다. 종교적 사유로 착용했을 경우 일부 예외는 있을 수 있으나, 얼굴 어떤 부위도 가려서는 안 된다.



자세한 정보는 미 대사관 웹사이트 [[http://usinfo.state.gov/usinfo/US\\_Embassies.html](http://usinfo.state.gov/usinfo/US_Embassies.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발 벗고, 팔 옆으로? 새로운 여행 규칙

지난 몇 년 사이 여행을 해 보신 분이라면 보안검사를 위해 줄을 서 보신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줄을 서 있는 동안 가방은 X선 검사대를 통과하고 사람들은 신원서류를 수도 없이 확인합니다. 휴대폰과 랩탑 컴퓨터를 케이스에서 꺼내 꺼고 주머니에 있는 동전과 열쇠는 모두 꺼냅니다. 신발과 벨트를 벗고 보석 같은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다면 모두 빼낸 다음 팔을 옆으로 쭉 펴고 섭니다. 금속탐지기를 지날 때 신호음이 울린다면, 원인을 찾기 위해 전자 봉으로 몸 구석 구석을 검사합니다.

여기서 상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머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부적절한 농담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총기, 폭탄, 종이 상자용 칼, 공중납치 등 수 천 명의 무고한 사상자를 낸 테러와 관련된 말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집니다. 아무리 상황이 잘 무마되었다 해도 최소 일시 수용될 수 있습니다. 여행 시작치고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출국장소에 일찍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90분 정도 일찍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제여행자는 대개 줄을 세 번 서야 하는데, 체크인과 탁송화물 검사, 보안검사를 위해서입니다. 비행기 시간이 급하다고 보안검사 앞 줄에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뒤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승인품목과 금지품목을 확인하십시오.

[[http://www.tsa.gov/publicinterapp/editorial/editorial\\_1012.xml](http://www.tsa.gov/publicinterapp/editorial/editorial_1012.xml)] 기내 반입용으로 승인되지 않는 일부 품목은 탁송화물에 넣을 수 있습니다. 손톱깎이는 금지품목이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여권과 탑승권은 즉시 제시할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1회 이상 이 서류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 저것 넣어 둔 손지갑이나 기내 반입용 가방 맨 밑바닥에 보관하시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 국제선을 이용할 때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가 얼마나 빨리 보안검사를 통과하느냐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발 밑창이 두텁거나 금속이 부착되어 있다면 금속탐지기가 울릴 것입니다. 신발을 벗어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이스가 복잡하게 달려 있거나 쥘리나 버클 또는 기타 조임 장치가 많아 신발 벗고 신는데 시간이 걸리면 당연히 줄이 밀릴 수 있습니다. 현명한 여행자라면 쉽게 신고 벗을 수 있는 신발을 신습니다. 게다가, 이런 신발은 오랜 국제선 여행에서 발을 편하게 하는 데도 편리합니다.
- 코트, 정장 상의, 블레이저를 제외하고 탈의 해 달라는 요청은 받지 않겠지만, 옷에 금속 단추나 버클이 있으면 탐지기 경고음이 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전자

봉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뒤 사람들 시간을 허비하는 셈이 됩니다. 가능한 금속 쥘리가 적은 편안한 옷을 착용하십시오.

- 보석류에 금속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보석을 벗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게다가, 주머니에 있는 동전, 열쇠, 휴대폰, 또는 주머니가 부풀어 오를 정도로 큰 물건은 모두 비워야 할 것입니다. 담배갑에 담배가 가득 들어있어도 탐지기가 울릴 수 있습니다. 보석 등을 뺐다가 다시 꺼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주머니에 들어있는 물건을 하나 하나 꺼냈다가 다시 집어 넣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상황에 맞게 차려 입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머니에 든 물건이 많다면 투명 봉지에 넣어 한꺼번에 검사

받으십시오. 괜히 경고음이 울려서 몸 이곳 저곳을 뒤적뒤적 하는 것도 그렇고 옆에서 계속 시계를 힐끔 쳐다보는 사람들 보기도 민망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물건을 넣은 봉지를 기내반입 수화물 가방에 넣고 수화물이 검사대를 통과하면 다시 꺼내서 주머니에 넣는 것입니다.

- 보석, 현금, 카메라, 랩탑 컴퓨터 같은 귀중품과 취급을 조심해야 할 품목은 기내반입 수화물 가방에 넣어서 보관하십시오. 랩탑 컴퓨터를 소지했을 경우, 컴퓨터를 꺼내

직접 켜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 기억 하십시오. 다른 전자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 현상하지 않은 필름은 기내반입 가방에 보관 하십시오. 탁송화물 검사장비 때문에 필름이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줄에 서서 필름이 어디 있는지 찾아 안전한 곳에 넣는다면 그 동안 사람들은 뒤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포장한 선물은 집에 넣지 마시고 보안 검사대에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가져왔을 경우 분명 옆으로 빠져 추가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모에게 주기 위해 멋진 식도 세트를 사셨다면 포장 하지 마시고 기내반입 가방이 아닌 탁송화물에 함께 보관 하십시오. 보안 검사대에서 압수된 물품은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이모에게 큰 실망만 안겨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 가방을 자물쇠로 잠그고 싶다면 TSA(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인증 자물쇠를 사용하십시오.

[[http://www.tsa.gov/publicinterapp/editorial/editorial\\_multi\\_image\\_with\\_table\\_0234.xml](http://www.tsa.gov/publicinterapp/editorial/editorial_multi_image_with_table_0234.xml)] 그렇지 않을 경우,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가방 자물쇠가 망가져 있을 수 있습니다. 탁송화물은 항공기에 선적되기 전 무작위로 추가 검사를 받습니다. 선택된 가방은 내부를 검사합니다. 이 점을 생각해 쉽게 열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 비자창구 반대편에서

JON PIECHOWSKI, VISA OFFICER  
U.S. EMBASSY CAIRO, EGYPT

비자 인터뷰는 창구 양쪽에 있는 모두에게 긴장되는 경험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위치한 미 대사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사관 중 하나로, 이곳에서 비자 담당관으로 근무해 온 저는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를 이행하고 유학, 사업, 단순 방문 목적으로 미국에 오려는 사람의 비이민 비자신청에 대해 승인 또는 거절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저의 주요 임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한 주에 300명 가량의 신청자를 맞이합니다. 대부분 이집트와 수단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직원과 함께 교대로 대사관 당직자(duty officer) 임무도 수행합니다. 이집트에 거주하는 미국시민이 비상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당직자가 이들을 도와줍니다.

영사가 개별 비자신청을 처리하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신청자라면 비자 인터뷰를 한결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를 할 것입니다. 사실, 인터뷰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 경우에 적합한 구체적 정보, 예를 들어 방문목적과 비용 충당방법, 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면 실제로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불안감도 덜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 임할 때는 이런 자료를 지참하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나아가, 비자 신청자가 답변을 할 때는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으며 질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영사에게 다시 물어보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저 자신도 아랍 발음이 완벽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요청 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말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인터뷰를 이행한 후, 저는 개별 신청자의 상황에 미국 이민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저의 모든 결정은 반드시 미국 법에 따라야 합니다. 대부분 비이민



비자의 경우, 신청자가 미국 외부에 있는 거주지와 중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입증했느냐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항은 전세계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으로 불법이민을 막기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들은

인터뷰에 임하기 전 이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경우, 신청자에게 비자를 발급하지만 때로는 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국 방문을 얼마나 열망하는지 아는 저로서는 거절 결정 내리는 일이 언제나 힘듭니다.

이곳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2001년 테러공격 이후 영사들이 일상적으로 수염을 기른 이슬람 남성과 히잡을 착용한 이슬람 여성에게 비자를 거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2001년 테러공격 이후 비자절차가 일부 변경되기는 했습니다. 비자 보안 개선을 위해 모든 신청자가 직접 인터뷰를 받고 손가락 스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공격 때문에, 합법적 여행자에게 미국의 문을 개방해 주어야 한다는 우리 믿음과 실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자긍심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니다.

대부분 동료와 마찬가지로, 저 또한 여행과 외국어 배우기, 해외에서 살기, 다양한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해서 외교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부인과 저는 수 천 개의 이슬람 성원 침탑이 즐비한 도시, 위대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카이로에서 인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도 여기 이집트에서 보낸 시간을 돌이켜 보며 우리 삶의 특별하고 소중한 시기였다고 생각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처리하는 비자를 통해 이집트 국민이 미국을 방문하고 거기서 저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국경보호관: 가장 먼저 보호, 가장 먼저 환영

KATHLEEN FAW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R

PORT OF WASHINGTON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케이슬린 포즈입니다.  
워싱턴 D.C. 외곽에 위치한  
워싱턴덜레스국제공항에서  
워싱턴포트  
세관국경보호관(CBPO)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200명에서  
300명 가량의 승객을  
접합니다. 모두 수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고 배경이나 미국  
방문사유가 흥미로운 분도 많습니다.

여행목적은 모든 승객에게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방문하거나 미국으로 영구 이주해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자녀를 방문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부모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 대학 다니는 아들을 만나러 오신  
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체류하냐고  
물었더니 2주 정도 머물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부인에게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이 빨리 가라고 쫓아내지 않으면 2주  
머물 계획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부인이 말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부인은 같은 경험을  
생각하며 함께 웃었습니다.

또 한 번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분들을  
만나러 오신 영국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소년이었을 때, 군용 비행기가 영국에 있는 부모님  
농장에 추락하였습니다. 그 후로, 당시 비행기에  
탑승했던 군인들이 농장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고향으로 영국 여행이 힘들어지자, 당시



소년이었던 자신이 직접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오는  
아이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특히 좋아합니다. 워싱턴  
D.C.를 관광하러 온  
아이들에게 제일 보고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한 사내아이가  
항공우주박물관에

가고싶다고 말하더니, 잠시 후 여동생이  
장난감백화점(Toys-R-Us)에 가고싶어 한다고 대신  
말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즐겁기는 하지만, 미국 국경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세관국경보호관의 임무입니다.  
최전선에서 미국의 법을 집행하고 테러분자와  
테로 도구를 차단해 미국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곳 워싱턴포트의 경우, 하루 마흔 두 편  
가량의 국제비행을 처리합니다. 승객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미국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고 재차 방문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에  
상관없이 모든 승객이 적절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리 책임입니다. 이 일은  
많은 승객이 동일 시각에 도착하고 그 중 많은  
분들이 연결 비행편을 이용해야 하는 관계로  
비교적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승객이 본인이 주장하는  
당사자가 맞는지, 필요한 서류는 모두 갖추고  
있는지, 이 나라에 물리적 또는 경제적 해를

끼치러 온 것은 아닌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추진중인 신규 보안절차가 큰 도움이 됩니다. 승객의 여권, 사진, 비자를 몇몇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도난 또는 변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승객의 디지털 지문을 신속하게 스캔하여 비교하는 한편, 입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간단한 대화를 합니다.

현재 여행하시는 분 대부분이 US-VISIT(United States Visitor and Immigration Status Indicator Technology)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US-VISIT 프로그램의 목적은 미국 시민과 방문자 모두의 보안을 제고하고 합법적인 국제 여행 및 교역이 한층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미국 이민체제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방문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14세에서 79세 사이의 모든 방문자에 대해 US-VISIT 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스캐너로 양손 엄지손가락 지문을 읽는 것과 사진 촬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매우 신속한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 절차에 최소한의 시간만 추가 될 뿐입니다. 여행자들도 이 절차에 빨리 익숙해졌고 대부분이 중요한 보안조치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대개, 유일하게 이 절차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지문도 읽지 않고 사진도 찍어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14세 이하 아동들입니다. 아이들 눈에는 이 과정이 무척 재미있어 보이는 듯 합니다.

모든 세관국경보호관은 미국 입국을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는 엄청난 책임을 안고있을 뿐 아니라, 합법적 여행자를 가장 먼저 환영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지니고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 수치로 본 미국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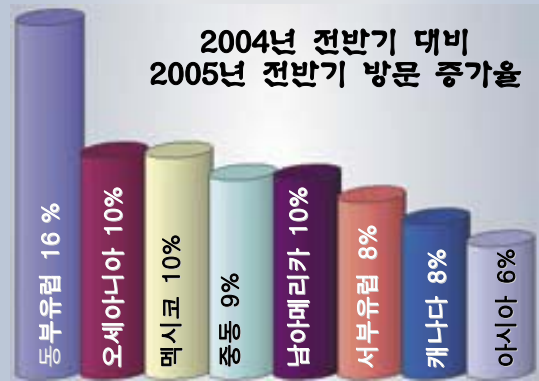
### 2004년 승인률

- 전 세계 미국비자 승인률 75%
- 유학비자 승인률 80%

### 2004년 여행자

- 사업여행자: 460만 명
- 국제방문자: 4,600만 명

### 2004년 전반기 대비 2005년 전반기 방문 증가율



### 2004년 6월에서 2005년 6월까지 방문자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한 국가

- 아르헨티나 • 호주 • 브라질
- 중국 • 프랑스 • 이탈리아 • 멕시코
- 네덜란드 • 한국
- 스페인 • 스웨덴

### 2004년 방문통계

- 최고 방문 월: 7월 (330만 명)
- 최저 방문 월: 2월 (210만 명)

자료출처: 미 상무부

## 관광객 정보

### 모두에게 특별함을

매년 미국을 방문하는 수백만 명의 관광객은 금세 미국이 정말 큰 나라이고 이곳의 많은 관광명소가 서로 수 천 마일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 한 번의 방문, 아니 수 차례에 걸친 방문이라 해도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 정부에는 국립관광국이 없지만, 미국여행산업협회(Travel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http://www.seeamerica.org>)와 각 주가 볼거리와 할거리에 대해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www.statelocalgov.net/50states-tourism.cfm>]. 여행사, 자동차클럽, 호텔, 그리고 기타 여행산업 조직들 또한 관광정보를 제공하며 인터넷을 통해 위치정보를 제공합니다.

여행을 계획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등 특정 도시에 머물며 도시와 주변 지역을 살펴볼 수 있고, 뉴잉글랜드 또는 북부 중서부 5대호를 포함한 특정 지역을 여행지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와이오밍에 있는 그랜드 테톤 국립공원(Grand Teton National Park)이나 미주리에 위치한 오자크 국립공원(Ozark National Scenic Riverways)과 같은 특정 관광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편의 글을 통해 색다른 여행계획을 제안합니다. 피아니스트이자 수상경력 있는 음악사학자 존 에드워드 하세(John Edward Hasse) 박사는 미국의 음악유산 중심지로 한 여행계획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박람회와 농장, 포도밭과 역사재현, 남달라서 재미있는 미국의 특징과 스포츠를 사진과 함께 소개합니다.

미국은 민족과 지리가 다양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특별함을 선사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취향이 무엇이든, 미국에서 특별한 흥미거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방문하든 미국인의 열린 마음, 관대함,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

### ...까지 얼마나 될까?



미국은 큰 나라입니다.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미국의 최고 명소간 거리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위 지도는 미국 주요 도시간 거리를 킬로미터로 묘사한 것입니다. 도로 거리는 이보다 약간 더 멀 수 있습니다.

# 미국 음악관광

JOHN EDWARD HASSE, PHD  
CURATOR OF AMERICAN MUSIC, SMITHSONIAN INSTITUTION

미국 방문계획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요 도시나 국립공원을 관광하거나 유명한 기념비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존 하세 박사가 독특한 여행방법을 제안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각양각색의 수 많은 음악전당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보지 않은 사람도 미국 음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230여년 전 건국한 후 지금까지, 미국은 다양성, 생명력, 창의성, 예술적 성취도 면에서 놀라운 수준을 갖춘 엄청난 양의 독창적 음악을 창출하였습니다. 소박한 밴조 음악과 시골풍 춤에서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로버트 존슨(Robert Johnson)의 블루스 음악과 찰리 파커(Charlie Parker)의 현란한 재즈 카텐차에 이르기까지, 미국 음악은 미국이 세계문화에 기여한 많은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에 속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토록 생명력 넘치고 영향력 있는 음악유형을 많이 창출한 국가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음악은 미국 국민의 활력, 다양함, 정신, 독창성을 반영합니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아레사 프랭클린(Aretha Franklin)의 힘과 헝크 윌리엄스(Hank Williams)의 애처로운 감정,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이 전하는 삶의 기쁨과 조니 캐시(Johnny Cash)의 솔직한 표현, 엘라 핏츠제랄드(Ella Fitzgerald)의 현란한 연주와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의 에너지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음악인들과 이들이 대변하는 음악장르는 음반, 다운로드, 인터넷 라디오, VOA 방송, 텔레비전, 비디오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들의 음악을

감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태어난 곳과 음악이 창조 및 보존 된 곳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 글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음악 박물관과 전당을 살펴보는 독특한 미국 관광방법을 제안합니다. 살사와 마리아치를 비롯해 비교적 최근 이민자들이 들여온 음악전통과 그런지(grunge), 랩, 힙합 같은 새로운 미국음악

유형은 아직 전용 박물관이나 사적 기념물과는 아직 연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악은 나이트클럽이나 축제 장소에 가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생겼다가 사라지고 축제는 매년 새로운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제 위치를 지키고 서 있을

장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재즈.** 재즈는 미국에서 생겨난 음악 중 가장 중대하고 영향력이 크고 혁신적인 유형입니다.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는 재즈 탄생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재즈 애호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입니다. 굳이 예외를 찾는다면 뉴욕시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2005년 8월 29일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초승달 도시”를 강타하면서 전세계 재즈 애호가들은 뉴올리언스 재건에 관한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음악 거장이자 링컨센터 재즈 디렉터인 윈튼 마살리스(Wynton Marsalis)가 트럼펫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시민과 전세계 재즈 애호가들은 1961년부터 뉴올리언스의 전통 사운드에 대해 일종의 전당 역할을 해 온 프렌치 쿼터(French Quarter)와 프리저베이션 홀(Preservation Hall:

[<http://www.preservationhall.com>])이 다시 문을 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을 열게 될 시설에는 루이 암스트롱과 빅스 바이더벡

(Bix Beiderbecke)을 포함해 초기 재즈 대가의 악기를 구비하고 있는 루이지애나 주립박물관의 재즈 전시관[<http://lsm.crt.state.la.us/site>]과 방문객이 스스로 걸어가며 즐길 수 있는 관광과 노스 피터스 스트리트 시설의 기타 정보를 제공하게 될 뉴올리언스 재즈 국립역사공원 방문객 센터(New Orleans Jazz National Historical Park Visitor Center [<http://www.nps.gov/jazz>])가 포함됩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미주리 캔자스시티는 재즈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카운트 베이시(Count Basie), 찰리 파커(Charlie Parker), 메리 루 윌리엄스(Mary Lou Williams)를 포함해 많은 위대한 재즈 연주자들이 이곳에서 연주를 펼쳤습니다. 바인 스트리트(18<sup>th</sup> and Vine Street)를 중심으로 형성된 옛 재즈구역을 방문하면 재즈가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는 미국재즈박물관(American Jazz Museum [<http://www.americanjazzmuseum.com>])과 역사적인 젬씨어터(Gem Theater)가 위치합니다.

뉴욕시티에서는 빌리지 방가드(Village Vanguard [<http://www.birdlandjazz.com>]), 블루 노트(Blue Note [<http://www.bluenote.net>]), 버드랜드(Birdland [<http://www.birdlandjazz.com>]))를 포함해 역사를 지닌 많은 나이트클럽에서 재즈를 선보입니다. 할렘에 있는 아폴로씨어터(Apollo Theater [<http://www.apollotheater.com>]))에서는 많은 위대한 재즈 아티스트가 연주를 펼쳤습니다. 57번 스트리트와 7번 예비뉴에 위치한 카네기 홀



블루스 기타연주자 클라크(W.C. Clark)가 즐겁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http://www.carnegiehall.org>]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 10월에는 1억 3천만 달러짜리 시설이 뉴욕시티의 최신 재즈전당으로 탄생했습니다. 이곳은 1,200석의 콘서트 홀, 센트럴파크를 내려다보며 웅장한 광경을 선사하는 400석의 홀, 140석을 갖춘 나이트클럽 디지스클럽 코카콜라(Dizzy's Club Coca-Cola)를 갖추고 있습니다.

뉴욕시티 퀸즈 지역에는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미국 재즈음악가인 루이 “사츠모(Satchmo)” 암스트롱(1901-71)의 저택이 위치합니다. 루이 암스트롱 하우스[<http://www.satchmo.net>]는 방문객에게 관광을 제공하며 기념품을 살 수 있는 작은 선물가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래그타임. 본질적으로 피아노음악인

래그타임은 재즈의 뿌리 중 하나입니다. “래그타임 작곡가들의 왕”인 스콧 조플린(Scott Joplin)의 소품이 미주리 세달리아(Sedalia)에 위치한 주립 페어(Fair) 커뮤니티칼리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조플린이 그의 유명한 곡 “단풍잎 래그(Maple Leaf Rag)”를 쓴 도시로 매년 스콧 조플린 래그타임 축제를 개최합니다. 좀 더 큰 도시인 세인트루이스를 방문하면 주립 사적지로 보호되고 있는 조플린 하우스 [<http://www.mostateparks.com/scottjoplin.htm>]를 볼 수 있습니다.

#### 블루스. 12소절 블루스는 전적으로 미국에서

창출된 유일한 음악 유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루스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진 미시시피주는 찰리 패튼(Charley Patton), 로버트 존슨(Robert Johnson), 하울린 울프(Howlin' Wolf), 머디 워터스(Muddy Waters), B.B. 킹(King)을 포함해 많은 유명 블루스 음악인을 배출하였습니다. 대부분은 미시시피 강을 따라 테네시 멤피스에서

남쪽 미시시피 빅스버그에 이르는 200마일 가량의 광활한 범람원 출신입니다. 미시시피 델타로 알려져 있는 이 지역 중 미시시피주 지역에는 클락스데일의 델타블루스박물관

[<http://www.deltabluesmuseum.org>],

로빈슨빌의 블루스&레전드 명예의 전당 박물관

[<http://www.bluesmuseum.org>],

리랜드의 하이웨이 61 블루스박물관

[<http://www.highway61blues.com>]이 위치합니다.

하이웨이 61은 블루스 음악인들이 북쪽에 위치한 테네시 멤피스로 갈 때 사용하던 길로, 일종의 블루스 고속도로라 할 수 있습니다.

멤피스에는 B.B.킹 블루스 클럽

[<http://www.bbkingclubs.com>]이 있고 유명한 빌

스트리트[<http://www.bealestreet.com>]에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와 “멤피스 블루스”를 작곡한 핸디(W. C. Handy)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블루그래스 음악.** 싱코페이트 스트링밴드 음악인 블루그래스는 미국 동부 애팔래치아 산맥 골짜기와 언덕의 시골지역에서 생겨났지만 도시 거주자에게 점점 더 큰 인기를 구가해 왔습니다. 켄터키 오웬스보로에 위치한 국제 블루그래스 음악 박물관[<http://www.bluegrass-museum.org>]과 이보다 조금 작은 인디애나 빈 블라썸에 위치한 빌 먼로의 블루그래스 명예의 전당 [http://www.beanblossom.com]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전용 드라이브 길인 크루키드 로드, 버지니아 음악유산 길

[<http://www.thecrookedroad.org/>]은 250마일을 따라 랄프 스탠리 박물관, 카터 패밀리 폴드, 블루리지 음악센터, 컨트리음악 탄생지 박물관 같은 시설을 연결하며 버지니아 서남지역에 위치합니다.

**컨트리 뮤직.** 오랫동안 컨트리 음악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테네시 내시빌은 세계 최장기 라디오 생방송의 고향으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다양한 컨트리 음악 공연이 펼쳐지는 그랜드 올 오프리 [http://www.opry.com]와 인상적인 컨트리 음악 명예의 전당 [http://www.countrymusichalloffame.com]을

자랑합니다. 명예의 전당 영구 전시회(Sing Me Back Home: A Journey Through Country Music)는 컨트리 음악 이야기를 전해주는 다채로운 의상, 기록, 악기, 사진, 필사본 등의 소장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처에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찰스 앳킨스를 포함해 많은 스타들이 녹음 한 RCA 스튜디오 B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활판 인쇄소 중 하나로 최고의 컨트리 음악 연주자 다수를 포스터에 선보였던 해치 쇼 프린트(Hatch Show Print)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내시빌에는 예전에 그랜드 올 오프리가 진행되었던 라이맨 오디토리움 [http://www.ryman.com]과 미국의 유망한 작곡가들이 모이는 주요 장소 중 하나인 블루버드 카페[http://www.bluebirdcafe.com]가 위치합니다. 미시시피 메리디안에 가면 컨트리 음악 창시자 중 한 명인 지미 로저스를 기리는 박물관 [http://www.jimmierodgers.com]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락, 리듬앤블루스, 소울.** 락앤롤 음악은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상한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수 억 명의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테네시 멤피스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흥미로운 저택 그레이스랜드 [http://www.elvis.com]와 엘비스가 첫 녹음을 한 이후 많은 유명



그랜드 올 오프리에서 '리틀 지미 딕킨스'는 전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1973년 엘비스 프레슬리 공연 모습입니다.

음악인이 녹음을 진행했던 썬 스튜디오  
[http://www.sunstudio.com] 뿐 아니라, 스탱스(Stax),  
하이(Hi), 아틀랜틱 레코드를 포괄한 스탱스  
아메리칸 소울 박물관

[http://www.staxmuseum.com]과 멤피스 및 머슬  
쇼즈(Muscle Shoals) 사운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멤피스 락앤소울 박물관은 192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멤피스 이야기를 블루스, 락, 소울에  
연계하는 최고의 스미소니언 전시회를 선보이며,  
W. C. 헨디에서 엘비스와 부커 T를 거쳐 MGs로  
연결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http://www.memphisrocknsoul.org].

미시건 디트로이트에는 수프림스(Supremes),  
템프테이션스(Temptations), 스티비 원더, 마빈 게이,  
아레사 프랭클린, 기타 모타운 레코드에서 녹음 한  
소울 가수의 기록이 담긴 모타운 역사박물관  
[http://www.motownmuseum.com]이 있습니다.

버디 홀리(Buddy Holly) 팬이라면 텍사스  
러벅(Lubbock)에 위치한 버디 홀리 센터  
[http://www.buddyhollycenter.org]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 위치한 웅장한 락앤롤  
명예의 전당[http://www.rockhall.com]은 저명한  
건축가 I. M. Pei가 설계한 매력적인 건물에 수 백  
개의 락앤롤 유물과 시청각 샘플을 담고 있습니다.  
워싱턴 시애틀에는 프랭크 게리(Frank Gehry)가  
설계한 건물에 위치한 익스피어리언스 뮤직 프로젝트  
[http://www.emplive.org]는 대중음악과 락에 초점을  
맞춘 고유한, 쌍방향 박물관입니다.



에밀루 해리스(Emmylou Harris)가 뉴포크 포크축제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포크 음악.** 대부분 국가에는 자국만의 토착  
음악이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흔히 이  
음악을 “포크 음악”으로 분류합니다. 포크 음악은  
전통적으로 입과 귀를 통해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도 포크  
음악은 종이에 쓴 악보가 아니라 귀를 통해  
배우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래와 악기가  
있지만 그 원래 모습은 신비에 싸여 있으며 곡  
하나에 많은 버전이 존재합니다. 각기 다른 귀와  
목소리, 손가락과 감성을 지닌 연주자를 거치면서  
형성 된 것입니다. 라이브 포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미국 전역에서 개최되는  
수 많은 포크 음악 축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축제는 매년 6월과 7월 워싱턴 D.  
C. 내셔널 몰에서 열리는 스미소니언 포크라이프  
축제입니다. 2006년에는 제 40회 연례축제가  
펼쳐집니다.

**라틴 음악.** 미국은 이민자로 구성된 “신세계”  
국가입니다. 신세계를 찾은 각 민족단체는 고국의  
음악 전통을 함께 들여왔고, 이 전통은 사람들이  
낮선 땅에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변화하고  
진화해 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소수단체로 자리잡은 라틴계열 사람들도 고유의  
음악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펫, 바이올린, 기타, 비우엘라, 기타론을  
함께 연주하는 멕시코 마리아치 음악은 미국  
서남부 지역 많은 장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리아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곳은  
로스엔젤레스 2501 월서 대로에 위치한 식당(La  
Fonda de Los Camperos)으로, 1969년 선구적으로  
마리아치 디너 공연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밴드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나티 카노(Nati Cano)는  
포크 및 전통 예술 분야에서 미국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가 생각해  
낸 마리아치 디너 공연은 아리조나 투싼, 뉴멕시코  
싼타페, 텍사스 산안토니오를 비롯해 많은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댄스음악 살사는 쿠바 및  
푸에르토리코 이민자들이 뉴욕시티로 들어 온  
것으로, 뉴욕과 마이애미를 비롯해 대도시에서  
많은 나이트클럽에서 들을 수 있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부분 활동한  
살사의 여왕을 기린  
전시회 아수카르(¡Azúcar!  
The Life and Music of Celia  
Cruz)를 보기 위해서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스미소니언  
미국사박물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전시는 2005년  
10월 31일까지 계속되며  
웹페이지[<http://www.americanhistory.si.edu/celiacruz/>]를  
통해 온라인 전시회를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락엔롤 명예의 전당은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 위치합니다..

웹페이지[<http://www.nps.gov/jela/Prairieacadianculturalcenter.ht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쇼튼과 고전음악.

미국 음악관광을  
제안하면서 쇼튼(show  
tunes)과 고전음악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전음악은  
유럽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태생인 아론

코플랜드와 레너드 번스타인이 고전음악 장르에  
열정적인 미국 스타일을 더해주었습니다. 미국에서  
고전음악 연주지로 가장 잘 알려진 곳은  
링컨센터[<http://www.lincolncenter.org/index2.asp>]와  
뉴욕시티에 있는 카네기홀

[<http://www.carnegiehall.org/jsps/intro.jsp>]입니다.  
하지만, 일부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선사하는  
훌륭한 공연은 미국 전역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http://www.findaconcert.com/>].

쇼튼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미국 라이브  
극장의 중심지인 브로드웨이를 소개합니다.  
브로드웨이는 뉴욕시티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  
명칭 중 하나이지만 이곳에 위치한 극장가(The  
Great White Way)" 열 두 블록을 총칭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연중 그치지 않고 지역 극장에서 재현됩니다.

**악기.** 뉴욕시티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http://www.metmuseum.org/Works\\_of\\_Art/department.asp?dep=18](http://www.metmuseum.org/Works_of_Art/department.asp?dep=18)]은 회귀 악기를 예술작품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미국사박물관에 가면 장식된 회귀  
스타리디바리우스(Stradivarius) 현악기, 피아노,  
하프시코드, 기타를 만날 수 있으며 그 외에  
전설적인 재즈 음악인 엘라 핏츠제랄스와 듀크  
엘링턴 관련 전시품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그리 멀지 않은 캘리포니아  
칼스배드에는 5백 종의 악기와 양방향 시청각  
샘플을 구비한 작곡박물관  
[<http://www.museumofmakingmusic.org>]이 있습니다.

**케이준 음악.** 뉴올리언스에서 서쪽으로 차로 세  
시간 정도 가면 루이지애나 유니스에 도착합니다  
이곳에 있는 프래리 아카디아 문화센터는  
1750년대에 캐나다에서 추방되어 이곳에 정착한  
아카디아(케이준)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독특한 프랑스 음악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http://www.nps.gov/jela/pphtml/facilities.html>]. 근처에  
있는 리버티 씨어터는 매주 토요일 밤 케이준 및  
자이데코 밴드, 단막 뮤지컬, 케이준 익살꾼을  
선보이는 2시간짜리 라디오 생방송(Rendez-vous des  
Cajuns)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유니스는 또한  
케이준 음악 명예의전당  
[<http://www.cajunfrenchmusic.org>]이 위치한 곳이며,  
유니스에 있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은 동시대  
크레올, 자이데코, 케이준 음악인을 소개한



자이데코 뉴브리드 밴드의 폴(J. Paul Jr)이 뉴올리언스  
재즈·유산 축제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로스엔젤레스 외곽 코로나에 있는 펜더  
음악미술관[<http://www.fendermuseum.com>]은  
펜더(Fender) 기타 50년 역사를 말해주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의 대평원 도시 버밀리언에는  
750점의 악기를 전시한 국립음악박물관  
[<http://www.usd.edu/smm>]이 있습니다.

미국 어디를 가든, 재즈, 블루스, 컨트리웨스턴,  
락앤롤을 비롯해 무수히 많은 미국 음악을  
사랑하고 방문자들과 함께 음악을 공유하려는  
미국인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어느  
지역을 방문하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추천도서

**Bird, Christiane.** *The Da Capo Jazz and Blues Lover's  
Guide to the U.S.* 3rd Ed. New York: Da Capo Press,  
2001.

**Chesborough, Steve.** *Blues Traveling: The Holy Sites of  
Delta Blues.* 2nd Ed.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2004.

**Clynes, Tom.** *Music Festivals from Bach to Blues: A  
Traveler's Guide.* Canton, MI: Visible Ink Press, 1996.

**Dollar, Steve.** *Jazz Guide: New York City.* New York:  
The Little Bookroom, 2003.

**Fussell, Fred C.** *Blue Ridge Music Trails.* Chapel Hill  
and Lond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3.

**Knight, Richard.** *The Blues Highway: New Orleans to  
Chicago: A Travel and Music Guide.* Hindhead, Surrey,  
UK: Trailblazer Publications, 2003.

**Millard, Bob.** *Music City USA: The Country Music  
Lover's Travel Guide to Nashville and Tennessee.* New  
York: Perennial, 1993.

**Unterberger, Richie.** *Music USA: The Rough Guide.*  
London: The Rough Guides, 1999.



### 존 에드워드 하세 박사

(Jonn Edward Hasse,  
Ph.D.)는 음악사학자 겸  
피아니스트이자 수상경력이  
있는 작가이자 음반  
제작자입니다. 스미소니언  
미국사박물관에서 미국음악  
큐레이터로 재직중이며,  
이곳에서 스미소니언 재즈

마스트워크 오케스트라를 설립하고 국제  
재즈감상의 달을 제정하였습니다. <Beyond  
Category: The Life and Genius of Duke Ellington>을  
집필하고 <Jazz: The First Century> 편집을 맡았으며,  
서적과 세 개의 디스크로 구성된 <The Classic  
Hoagy Carmichael> 집필 겸 제작을 맡았습니다. 이  
작품 덕분에 그는 두 편의 그래미어워드 후보에  
올랐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과 세계 각지에서  
미국음악을 강의하는 폭 넓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 미국의 보물

영화와 텔레비전 덕분에 세계는 이제 미국의 수 많은 기념비에 익숙해졌습니다. 대도시 하늘을 수 놓은 건물들, 워싱턴 D.C.에 있는 하얀 대리석 기념관들, 서부의 대평원과 고산지대 “카우보이”, 로스엔젤레스의 매력을 대변하는 언덕 위 할리우드 표시판 등, 사실 너무나 많은 미국의 기념비적 특징이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미국 땅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미국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흔히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경이롭고 고유한 풍경과 소리, 음식으로 가득하고 두 팔을 벌려 친근하게 맞아주는 사람들로 그윽한, 다양하기 그지없는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카고 시어스타워, 그랜드캐년, 디즈니월드 같은 미국의 상징도 물론 가치 있는 볼거리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외에도 놀랄만한 가치를 지닌 곳이 많습니다.

뉴욕씨티를 예로 들면, 눈으로 덮인 센트럴파크를 마차를 타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모습 상상해 보셨어요?

이 글을 통해, 한층 확장된 미국 관광방법을 사진과 함께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 관심 있으시면, 서부에 있는 주 뿐만 아니라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토착미국인 축제에 참여해 보세요

[<http://www.500nations.com/>]. 사진은 뉴욕에서 공연을 펼치는 투스카로라 인디언 모습입니다. 또, 미국 전역에서 옛 군복을 차려 입고 혁명전쟁(1774-1781)과 남북전쟁(1861-1865)를 중심으로 한 전투장면을 지방에서 재현하는 행사가 펼쳐집니다.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인디언 고분에서부터 다양한 시기의 민속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관광방법도 있습니다.



AP/Wide World Photo by April L. Brown



미국의 유서 깊은 농업전통은 주와 카운티에서 여름에서 가을까지 개최하는 수 백 개의 박람회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http://www.expocentral.com/agriculture/us\\_fairs/US\\_Fairs.html](http://www.expocentral.com/agriculture/us_fairs/US_Fairs.html)]. 박람회는 지역 주민이 전년도 수확을 자랑하는 행사로, 트랙터 경주와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다양한 놀이기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진은 “엥글 샘”과 다채롭게 꾸미고 일리노이 주 박람회 퍼레이드에 참여한 소, 아칸소 주 박람회 놀이기구 모습입니다.

놀이기구 타기를 좋아한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즈니월드 외에도 많은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http://themeparks.about.com/od/findusthemeparks/>]. 예를 들어, 오하이오 세다포인트 놀이공원에는 95미터 상공에서 시속 145 킬로미터로 달리는 밀레니엄 포스(왼쪽 하단)가 있습니다.

박물관을 선호하시는 분은 미국 전역에서 고전미술관에서부터 시작해 해양생물, 뜨개질, 서부유산 등 온갖 다양한 주제를 전문적으로 다룬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포괄적인 범위의 박물관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http://icom.museum/vlmp/usa.html> or <http://www.museumlink.com/states.htm>].  
사진은 인디애나 인디애나 주 폴리스에 위치한 어린이박물관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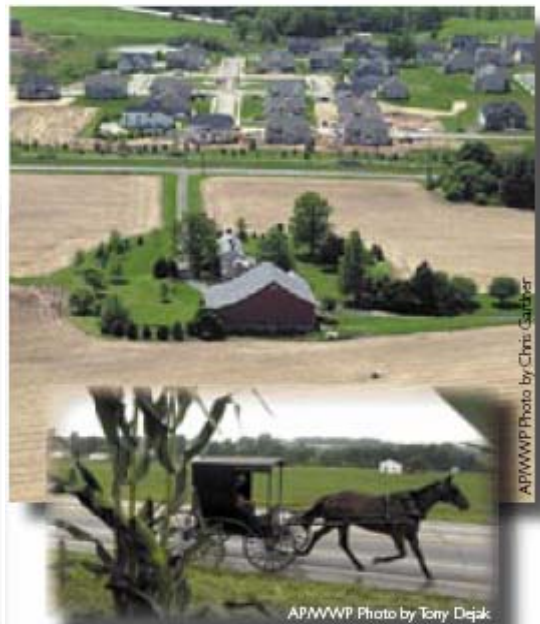


AP/WWP Photo

미국 포도주 양조장은 어떠세요? 미국 와인은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상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관광을 제공하는 포도원이 거의 모든 주에 있습니다[<http://www.travelenvoy.com/wine/USA.htm>]. 아래 왼쪽 사진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로버트 몬다비 포도원 모습입니다. 도시를 넘어 자연을 방문한 사람들은 미국의 많은 지역이 시골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이 시골 모습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은 펜실베이니아 주의 농장보존 프로그램에 따라 보존되는 농장의 모습입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 시골길을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암만과 마차(우측 하단)와 나란히 갈 수도 있습니다. 독일을 배경으로 생긴 종교단체 암만과는 현대문화의 편의를 수용하지 않고 겸손함과 구성원간 상호협력력을 강조하며 살아갑니다.



AP/WWP Photo by Eric Risberg



AP/WWP Photo by Chris Gardner

AP/WWP Photo by Tony Dejak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면서 기쁨을 얻는 미국인도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알톤에 있는 “피자 농장” 농부는 주 반 에이커의 땅을 둥글게 만들어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 각 조각에 피자 만들 때 사용되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AP/WWP Photo by Mike Gullett



AP/WWP Photo by Tom Gannam

시카고에서 로스엔젤레스까지 대각선으로 이어진 전설의 도로 루트 66은 지금도 많은 도로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사진은 캔자스 갈레나 상공회의소 직원이 루트 66을 표시하는 간판을 색칠하는 모습입니다.

웹페이지[<http://www.roadtripusa.com/>]를 방문하면 루트 66에 있는 볼거리와 기타 미국 도로여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 색다른 여행을 원하신다면, 영국에 있는 스톤헨지를 흉내내서 만든 카헨지를 둘러 보십시오. 카헨지는 네브라스카에 있는 자동차 예술 리저브(Car Art Reserve)의 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에는 스톤헨지를 모방한 곳이 아홉 곳 더 있습니다. 웹페이지 정보[<http://www.roadsideamerica.com/set/OVERhenges.html>]에 따르면, 냉장고와 스티로폼을 사용한 곳도 있지만 일부는 실제 돌기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국의 기상천외한 특징 정보를 원하시면, 웹페이지[<http://www.eccentricamerica.com/>]를 방문해 지역 하이라이트를 살펴보세요.



AP/WWP Photo by David Zukowski

직접 운동 하는 것을 좋아하든 보는 것을 좋아하든 상관 없습니다. 미국은 스포츠 애호가의 천국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야외활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알래스카의 개 썰매나 버지니아 북부에 있는 그레이트 폴스 파크에서 카약을 즐기면 좋을 것입니다.



AP/WWP Photo by Ron Edmunds



AP/WWP Photo by Al Gni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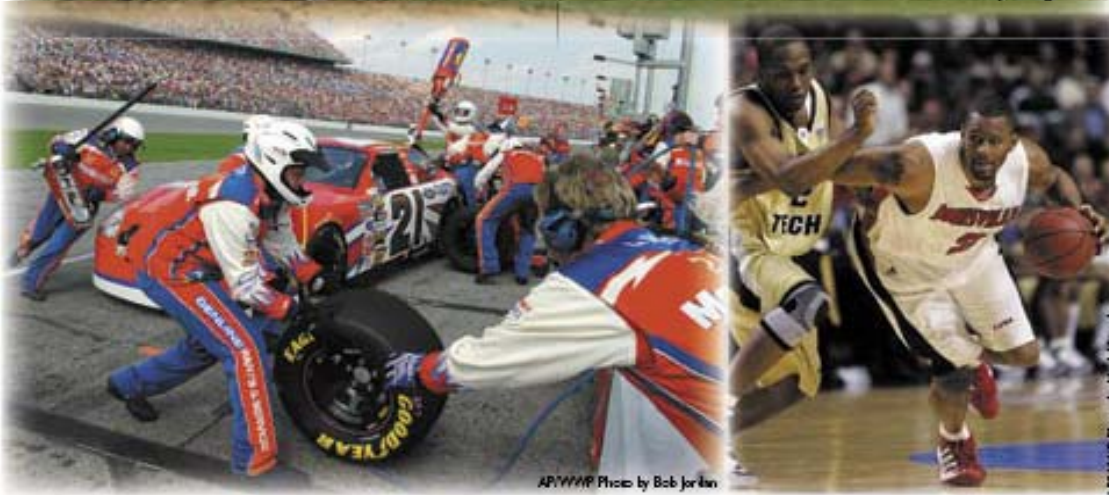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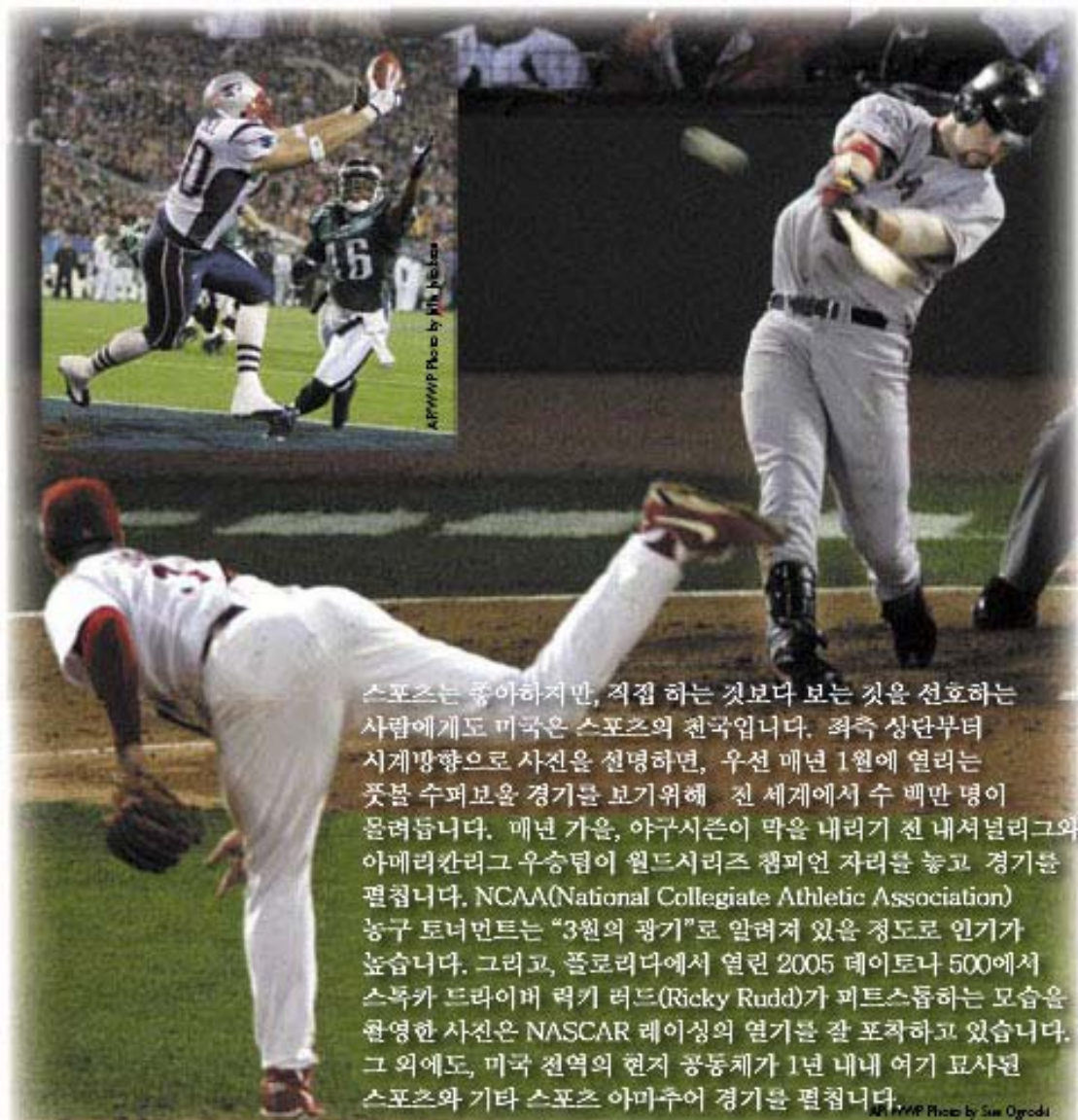
대학생들이 “프리스비 빵집”의 파이 담은 팬을 던지던 놀이가 프리스비라는 정식 스포츠로 발전하였습니다. 사진은 브라운대학과 다트마우스대학 학생들이 로드아일랜드에서 열린 2005 뉴잉글랜드 지역 프리스비 토너먼트에서 경기하는 모습입니다. 수 백년 전 토착미국인이 개발한 라크로스는 현재 미국 남녀 사이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팀 스포츠입니다. 사진은 오레곤대학과 워싱턴대학 라크로스 팀이 2004 퍼시픽 노스웨스트 칼리지 라크로스 리그 토너먼트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AP/WWP Photo by John Froeschauer



AP/WWP Photo by Adam Hunger



## 유학생 정보

###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미국 알기

매년, 50만 명 이상의 국제학생이 미국을 유학지로 선택하고 미국 또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문을 들으셨던, 실제 모든 유학비자 신청의 80% 가량이 승인을 받습니다.

게다가, 지난 2년 동안 미국 영사관은 국제학생 수용을 위해 중대 변화를 추진하였고 이제는 유학 지망생을 위해 특별 비자 인터뷰 예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유학비자 신청자들이 예약을 하지 않고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또한 다른 나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학비자 유효기간을 확장하고 다중 입국을 가능케 하여 국제 학생이 방학에 고국을 용이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마감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이를 고려해 영사들이 유학비자 신청을 한층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장해 왔습니다.



Photo Courtesy of the University of Georgia Paul Eiland

조지아 채플(Georgia Chapel) 대학은 1823년 건립되었습니다.



AP/Wide World Photo by Rex Arbores

뉴저지 프린스턴대학은 2명의 미국대통령, 8명의 대법관, 2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입니다.

지난 해 62만 명 이상의 외국 학생이 미국 고등교육 기관에 등록했고, 별도로 32만 2천명이 다양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왔습니다.

국제 학생들이 미국 교육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미국인들이 이곳을 선택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우수한 학문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선택 사항이 주어지는 나라, 실제 매우 유연하게 자신의 학업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전통분야와 첨단분야 모두에서 세계적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는

미국 고등교육 프로그램은 논리적 고찰과 합리적 분석, 열띤 토론을 통한 독립적 사고력 배양을 소중히 한다는 점 때문에 높이 평가 받습니다.

미국의 문화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학업환경도 매우 다양합니다. 사실상 캠퍼스 내 모든 사람을 알고 지낼 수 있는 작은 단과대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기숙사 하나의 학생 수가 작은 마을 인구에 버금가는 대형 종합대학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도시 대학에 다닐 수도 있고 시골 대학에 다닐 수도 있으며, 대학을 중심으로 조그마한 타운이 구성된 곳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보조금을 제공하고 비교적 개방적인 입학정책을 유지하는 주립대학이 있고 선정절차가 한층 까다롭고 일반적으로 학비도 더 비싼 사립대학도 있습니다. 물론, 오랜 전통을 지닌 학교도 있고 현대성을 강조하고 여기에 자부심을 지닌 학교도 있으며,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이 있고 일반대학과 과학연구 대학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남녀공학이 있는 반면, 한쪽 성만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학업환경을 추구하든, 3,700개의 다양한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을 갖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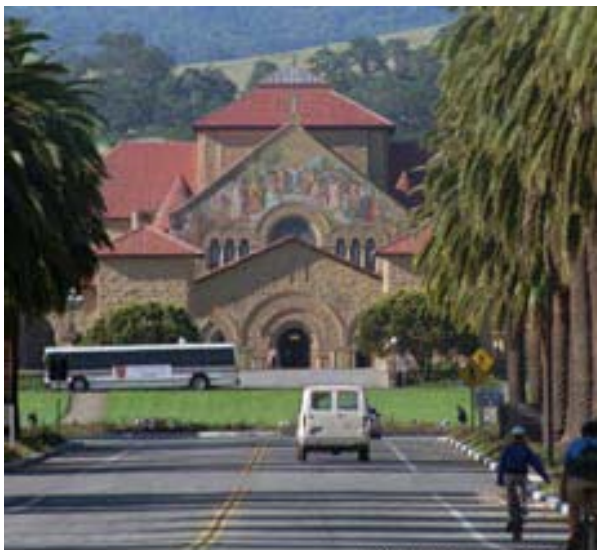


AP/WIDE Photo by Angela Rowlin

1865년 첫 입학생을 받은 보스턴 MIT는 지금까지 6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미국에서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이 세계 최고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그만큼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미국은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보편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 세계의 많은 재능 있는 학생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국 대학에 지원하시기를 권고합니다.



AP/WIDE Staff photo by Paul Sakuma

스탠포드 대학 교수진에는 17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웹페이지[<http://educationusa.state.gov>]를 방문하면, 미국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위 및 비학위 과정,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유형, 미국 교육철학 설명, 그리고 기타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 다니는 동안, 선택한 학문분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는 한편 여행 및 미국인과의 일상 교류를 통해 단기방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진정한 미국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Martha Miller/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PA 05

오스틴 텍사스 대학은 우수한 도서관 시스템과 전국적으로 상위를 차지한 학문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학생 입장에서는 매우 기대되는 부분이지만서 동시에 도전이기도 합니다. 음식과 기후가 완전히 다를 수 있고 새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고향이 그리울 수 있습니다. 만나는 미국인의 태도와 행동에 어리둥절할 때도 있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학교수업 자체도 소화해야 하는데, 거기다 길도 익히고 교통수단에도 익숙해져야 하고 미국은행 이용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쇼핑도 해야 하고 미터법이 아닌 미국 단위에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모험심과 유머 감각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미국과 미국인을 자세히 보고 여러분의 선입견이 사실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과 미국인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결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미국은 각자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지니고 이땅에 온 이민자 물결을 통해 세워졌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은 견해나 기준이 매우 다양하며 편리하게 몇몇 전형화된 틀로 특징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대표적 특징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옷을 입고 서로 대화할 때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때로는 상당히 경쟁적이고 시간과 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개인의 독립성에 큰 가치를 둡니다. 나아가, 미국인들은 대체로 친근하고 개방적이며 익살을 즐기고 관대하며, 성취욕을 지닌 포용적 팀 플레이어들입니다. 하지만, 이 “전형적인” 특징을 일부만 지니거나 전혀 지니지 않은 미국인도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듯이 말이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며 때로는 걱정도 하고 때로는 기쁨도 느끼는 경험을 했고, 그들 중 대부분이 학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 경험이 매우 가치 있었다고 평가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대학 당국도 여러분이 고국에서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웹페이지[<http://educationusa.state.gov/life.htm>]를 방문하면 미국의 삶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 일생의 기회: 미국대학 국제입학

DALE EDWARD GOUGH  
DIRECTOR, INTERNATIONAL EDUCATION SERVICES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IATE REGISTRARS AND  
ADMISSIONS OFFICERS (AACRAO) WASHINGTON, DC  
<http://www.aacrao.org>

여러분이 미국 대학  
입학신청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무엇보다  
대부분 미국 교육기관이  
입학을 결정할 때 따르는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대개  
교육부나 기타 유사 기관이  
자국 교육체제를 벗어난  
외부 지원자의 일반적인  
자격을 결정하지만, 미국  
에서는 각 대학이 자유롭게  
입학기준을 설정하고 지원 학생이 그 입학기준을  
충족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자체 표준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출신인 모우사 다오(Moussa Dao)가 마이애미에 위치한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대학 캠퍼스 서점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 교육 발의’ 설립자인 폴라 니르셀(Paula Nirschel)이 두 명의 프로그램 참여자와 함께 로드아일랜드 브리스톨에 위치한 로저 윌리엄스 대학을 걷고 있습니다.

표준이 높을수록 대학의  
선별 기준은 까다롭고 입학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학교는 1) 고도로 선별적, 2)  
선별적, 3) 다소 선별적, 4)  
자유입학(학생의 과거  
학업성적과는 상관없이 학생을  
입학시킬 수 있는 기관),  
이렇게 네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과거  
학업성적이 표준을 충족하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교육배경을 검토하고 여러분이  
입학기준을 충족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각 대학의  
책임입니다.

많은 교육기관이 지원자의 전 학업을 평가하는  
자체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여러분  
학업기록을 교육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  
대행사에 보내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특정 대행사를 지정해주거나 몇몇 대행사 목록을  
제공하고 여러분이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대행사들은 여러분의 전 교육을 평가하고  
해당 교육기관에 평가자료를 제공하지만, 자체적으로  
입학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원한  
대학만이 입학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AP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Photo by Steve Rouse

서던미시시피 ELI에 다니는 한 한국학생이 대학에서 매년 개최하는 국제 음식박람회에서 한국 음식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각 입학지원서에 적혀있는 지시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사항을 신중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교육기관에 지원할 경우,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사항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학교마다 요건이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 대학이 자체에서 여러분 학업기록을 검토하든 지정된 외부 대행사가 검토하든 상관없이, 전 학업기록을 모두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전 학교의 성적증명서 공식사본 또는 인증사본(지원서 자료에서 흔히 “transcript”로 지칭되는 문서)를 여러분이 지원하는 교육기관과 여러분 교육을 검토하는 대행사에 보내야 할 것입니다. ‘공식 증명서(Official records)’란 반드시 여러분이 다녔던 학교가 성적증명서를 직접 지원대학 및/또는 평가 대행사에 전송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원자가 이 증명서를 직접 지원학교에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증명서는 “공식(official)” 증명서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성적증명서가 영어로 되어있지 않을 경우, 번역을 한 다음 반드시 번역본도 함께 지원 교육기관 및/또는 평가 대행사에 보내야 합니다. 지원

교육기관과 대행사는 원어로 된 성적증명서와 번역된 성적증명서 모두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 번역 관련 지시사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식’ 번역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인증’ 또는 ‘면허를 소지한’ 번역사가 번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육기관과 대행사는 여러분이 영어에 능숙할 경우 직접 번역을 하도록 허락해 줄 수도 있습니다.
- 외부시험은 미국 교육기관이 여러분 입학결정할 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의 프랑스의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또는 영국의 Ordinary 또는 Advanced 레벨 시험 같은 외부 국가시험을 사용하는 체제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이 외부시험 성적표 사본을 보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Courtesy of Eastern Mennonite University

버지니아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 국제 학생들이 잔디밭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 학부(학사학위) 1학년 과정에 지원한다면, SAT나 ACT처럼 일반적으로 미국 지원자에게도 요구되는 특정 표준 평가시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시험을 보아야 하며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 줄 것입니다.
- 대학원(석사 또는 박사 학위) 지원자의 경우 GRE 시험이 요구될 수 있으며, MBA 지원자에게는 GMAT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때도, 지원하는



AP/Wide World Photo by Jon C. Hanson

일본 학생들이 웨스트버지니아 콩코드 대학 국제학생센터에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대학원 지원자에게 어떤 표준시험이 요구되며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줄 것입니다.

- 영어가 여러분 모국어가 아닐 경우, 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나 지역에서 교육 받았을 경우에는 학부 및 대학원 지원자 모두 TOEFL같은 영어 능력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조교 자리를 원하는 대학원 지원자의 경우, 영어로 가르칠 수 있다는 증거 자료로 TSE 시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F-1이나 M-1 (유학) 비자 또는 J-1 (교환방문) 비자가 필요하다면, 예상 유학 기간동안 적절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미국 대학은 여러분 학업을 지원 할 재정과 관련해 특정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청하거나 어떤 문서가 요구되는지 알려 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재정지원 원천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양식을 작성하고 이 사항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재정 문서에 관한 지시사항을 신중하게 따르셔야 합니다.
- 마감시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서 양식에

마감시한이 제시되어 있을 경우, 시한을 꼭 명심하십시오. 국제학생 입학승인 절차는 미국학생 입학승인 절차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부분 미국 대학은 국제학생의 지원 마감시한을 일찍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감시한 전에 여러분 지원서가 수령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이 매년 수 백 건 또는 수 천 건의 국제학생 입학지원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학기에 입학할 수 있는지 검토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자료가 지정된 마감시한 전에 수령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여러분 국가에 있는 EducationUSA Advising Center를 방문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EducationUSA는 미국대학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정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미국 내 학교를 선정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내 미국 대사관에 문의하면 EducationUSA 사무소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웹사이트[[www.educationUSA.state.gov/centers.htm](http://www.educationUSA.state.gov/centers.htm)]를 방문하면 사무소 위치 뿐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며 대가 또한 클 것입니다. 그 경험을 최상의 상태에서 시작하기 위해서는 각 교육기관의 지시사항을 세밀하게 따르십시오. 지원절차나 여러분이 제공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의문이 있으시면, 관심 있는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여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 미국의 고등교육: 재정적 측면

NANCY W. KETEKU  
REGIONAL EDUCATIONAL ADVISING COORDINATOR FOR AFRICA  
DEPARTMENT OF STATE, ACCRA, GHANA

미국대학 재학에 관심 있으세요?  
정부가 중앙에서 교육체제를  
통제하는 국가의 교육비보다 미국  
내 교육비가 더 높다는 점은 이미  
파악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교육이 투자에 대해  
뛰어난 보상을 해 준다는 점, 다시  
말해 투자 재정에 대해 뛰어난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 또한 파악  
하셨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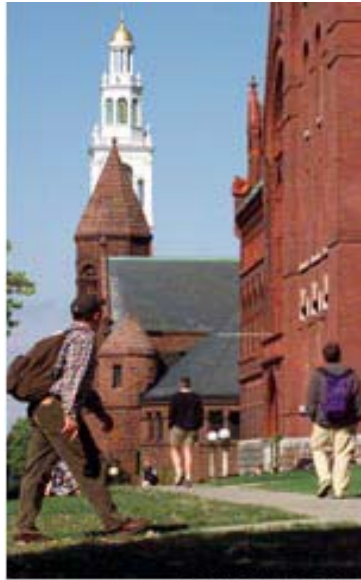
미국 교육은 여러분이 선택한  
학문분야의 우수성 뿐 아니라,  
실습경험과 직접 참여하는 실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큰  
재정을 지원 받는 시설(지난 해  
미국 대학이 지원 받은 연구재정이  
400억 달러였다는 것 아셨어요?),  
분석적 글쓰기 및 말하기 기술  
개발, 네트워킹, 학생의 열망과  
꿈을 지원하는 교수진과의 긴밀한  
관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여러분이 폭 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미국 대학은 학업관련 지원과, 거주시설, 클럽,  
학생조직,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인턴쉽, 다른  
대학과의 교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러분이 지평을  
확장하고 고국에 돌아갔을 때 사회에서 역동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행히, 야심을 지니고 신중하게 계획하는 학생은  
비용을 절감하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재정지원 자격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교육비와 관련해 학생들이 참고해야  
할 유용한 정보입니다.

- 가까이 있는 EducationUSA Advising Center를  
방문하십시오. 여러분이 미국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한  
정보, 공정한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ducationUSA 센터는 미 국무부가 지원하며



AP/WIDE Photo by Toby Talbot

Kaplan/Newsweek 대학가이드가 미국의  
25대 대학 중 하나로 선정한 버몬트대학에  
서 학생들이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식 정보원 역할을  
합니다.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는 웹사이트

[<http://www.educationUSA.state.gov/centers.htm>]에서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교육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부모님과 상의하십시오.  
부모님(또는 친지)께서 여러분에게  
연간 얼마 정도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지 말씀하시면, 그 금액을  
미국에서 학부 학위를 받는데  
일반적으로 4년이 소요되니 곱하기  
4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 즉 가정 부담금(Family  
Contribution)이 여러분이 어떤  
대학에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며 예산에 비해 학비가  
지나치게 높은 대학에 지원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 그 외에, 여러분이 대학에서 추구하는 기타  
특징에 대해 고려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학교  
규모, 위치, 생활환경, 학문분야, 특별 프로그램,  
인구 등이 포함 될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3천 개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분명히 알면 학교를  
선정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입학요건, 비용, 재정지원 등 국제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별 출판물도  
있습니다. EducationUSA 센터에서 참고할 수  
있는 출판물로는 <The College Board International  
Student Handbook>과 Peterson 출판사에서 나온  
<Applying to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가 있습니다.

아래 기술된 대학 재정지원 외에도 미국 내 고등교육  
재정 충당 방법은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집니다.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기금:** 미국 시민과 국제 학부학생의 재정원으로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대학교육 비용충당은 일차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라는 것이 미국인의 생각입니다.

**대학기금:** 대학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은 두 번째 흔한 교육 재정원입니다. 이 기금은 우수성(merit: 학업성적 우수장학금) 또는 재정지원 필요성(재정보조)에 바탕을 두고 결정됩니다.

**체육장학금:** 대학 재정지원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스포츠에서 우수성을 인정 받은 국제 학생은 신중한 계획을 통해 미국에서 교육 받는 것에 대해 재정을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또는 기관 후원자:** 미국 또는 해외 사설후원은 학생과 후원자 사이의 개인적 관계 성격을 띠거나 선별된 후보자 사이의 공개경쟁 형태를 취합니다. 기업, 공공기관, 종교단체가 학생을 후원할 경우, 해당 조직은 상환이나 미래 고용 등 학생이 동의한 조건이 있다면 이 조건관련 정보를 포함해,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전반적인 세부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단 및 국제조직:** UN을 비롯해 잘 알려진 조직들은 특정 국가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수혜자를 선정합니다. 이 경우, 수혜자는 주로 학부학생이 아니라 대학원 학생입니다.

**본국 정부:** 여러분 정부가 유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 대부분 미국 정부 프로그램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대사관 PAS(Public Affairs Section) 또는 US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양자협정에 준하여 관리합니다.

**장학기관:** 사기 기관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개, 정보를 제공하는 댓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장학기관이 있다면, 내용이 아무리 인상적이고 보장사항이 아무리 설득력 있어도 매우 신중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 대학 재정보조: 지원 원리

국제학생 사이의 대학 재정보조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개인 재정원이 제한되어 있는 학생일 경우, 최대 재정보조 패키지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매우 우수한 지원자여야 합니다.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국제학생 수가 워낙 많이 때문에,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입학위원회의 호의적 고려를 확보하는 기본 경쟁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규모가 큰 재정보조를 확보하려는 학생은 우수한 학생들 틈에서 한층 우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EducationUSA 센터 조연자가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센터에서는 유용한 에세이 쓰기 지침서와 기타 입학절차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액과 수혜학생 수는 각 교육기관마다 크게 다르며, 대학교육 비용 전체를 포괄하는 재정보조 패키지를 제공하는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각 학교는 국제학생 재정보조에 대해 자체 예산과 정책을 설정하고 미국 시민을 위한 보조와는 개별적으로 운영합니다.

사립 교양중심 대학이 국제학생에게 가장 많은 재정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립 연구대학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에서 운영하는 공립대학과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는 사립대학보다 학비는 저렴하지만 국제학생에게 재정 보조금은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부 교육기관은 특별한 상황 하에서, 또는 학생이 1학년 과정 학비를 지불하고 과정을 이수한 후에만 보조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재정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최소 1년 전에 대학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여유를 두고 확보할 수 있는 재정원을 조사 및 확인하고 필요한 시험을 치른 다음, 마감시한까지 입학지원서와 재정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휴스턴에 위치한 라이스 대학은 정기적으로 미국 고등교육 기관 중 최고가치 대학으로 선정됩니다.

### 교육비 절감 방법

교육비용 절감은 스스로 장학금을 창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용절감 잠재력을 과대평가 해서도 안 되지만, 어떻게 하면 교육 지출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다음 아이디어도 비용절감 방법에 속합니다.

- **최고가치 추구:** 가장 저렴한 비용에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을 찾습니다.  
EducationUSA 조인자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몇 가지 서적과 간행물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조기졸업 프로그램:** 4년 학사학위 과정을 3년 만에 마친다면 수 천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조기졸업은 a) 매 학기 한 과목을 추가로 수강(선별적 경우), b) 여름학기 수강, c) 수강료가 비교적 낮고 학점이 인정될 경우 근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강, d) 본국에서 대학수준 학문(A-level, 바칼로레아 등)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레이스먼트 시험을 보거나 SAT Subject Test 점수를 제출하는 것도 각 학교 정책에 따라 조기졸업을 위한 학점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에 위치한 오웬스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대학은 2년 과정에 준학사 학위를 제공합니다.

- **주 외부 학생 수업료 면제:** 일부 주에서는 국제학생에 대해 선별적으로 주 내부 학생에게 적용되는 수업료를 적용합니다. 흔히, 성적이 우수하거나 리더십 역할을 한 학생을 고려해 보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입학담당자나 국제학생 조인자에게 수업료 면제(tuition waiver) 정보를 구하십시오. 그 외에도, 자신의 고향 도시가 대학이 있는 도시와 공식 자매결연을 맺고 있을 경우에도 주 내부학생 수업료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비용:** 기숙사에서 RA(Resident Assistant)를 할 경우 숙박비용 수 천 달러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일을 하면 적당한 급여와 무료 식사를 제공 받습니다. 친지 또는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 밖에서 생활하는 것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적절한 설비가 갖추어져야 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합니다.

•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미국의 많은 국제 학생들이 첫 2년 동안은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고 그 후에 학위를 위해 4년제 학교로 편입함으로써 수 천 달러의 수업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따르기 전에, 여러분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강한 모든 과목이 편입하려는 학교에서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취업:** 이민 규정에 따라, F-1 지위의 국제학생은 캠퍼스에서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10-15시간 정도,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서 거둔 수입은 책, 옷, 개인 용돈 정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며 대학 수업료를 내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구내식당이나 도서관 등, 대학 캠퍼스에서 다양한 고용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RA(Research Assistant)나 개인교습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을 통해 수입도 벌면서 동시에 학업공부도 한층 증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캠퍼스 일자리는 스스로 돈을 번다는데 자부심을 느끼는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 **융자:** 많은 대학이 재정보조 패키지의 일환으로 국제학생을 대상으로 한 융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대학이 통제하는 사설기금이나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연방정부 대출 프로그램과는 별도로입니다. 일부 융자는 미국 시민/영주권자의 동시 서명을 요구합니다. 서명하는 사람들이 융자금 상환을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대학은 국제학생이 과도한 융자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을 기합니다.

##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50만 명 이상의 국제학생이 미국 대학입학과 재정확보 절차를 통과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면 분명 그만한 대가를 얻을 것입니다. 미국 교육을 통해 여러분은 삶이 빠른 속도로 앞서 나아가게 하는 한편 여러분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회가 여러분 앞에 펼쳐 질 것입니다. ■

##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결정”

NYASHA KANGANGA

Home Country: Zimbabwe

Undergraduate in Chemical Engineering at The College of St. Catherine, St. Paul, Minnesota

고국을 떠나 유학 할 장소를 선정한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내려야 할 결정 중 가장 어려운 결정에 속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향이 너무 그립지 않을 곳, 너무 외롭지 않을 곳,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한 완벽에 가장 가까운 바로 그곳을 찾습니다. 저는 조언센터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내린 결정 중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미네소타 주에 있는 세인트 캐서린 대학을 선택한 것입니다. 조언 해 주신 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제게 무엇이 필요하며 제가 어디를 가야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한듯한 느낌입니다.

미국은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 훨씬 살기 좋은 곳입니다.

미국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저는 전형적인 미국인이란 것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만난 단 한 명의 미국인을 보고 모든 미국인이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네소타 주 미국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민족과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문화 다양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 모습을 좋아하기에 애써 다른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세계적 사안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받은 교양 교육은 비판적으로 사고 할 것을 요구했고 모든 측면에서 사안을 분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견해에 내포된 편견을 직접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으며, 내 머리와 내 가슴으로 설정한 목표라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화학공학 학사학위를 받아 짐바브웨의 화학산업이 우뚝 설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이곳 대학에서 국제입학 담당자 분들이 제공하는 지원은 정말 훌륭합니다. 세세한 모든 부분까지 배려 해 주셨습니다. 호스트 가족이 공방으로 저를 마중 나오게 조치해주셨고 기숙사 제 방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해 적극 지원해주십니다. 국제학생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매우 철저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캠퍼스 뿐 아니라 주변 쇼핑지역 지리는 물론,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첫 학기동안 저는 자원해서 ‘아프리카의 밤’ 행사 마스터를 맡았습니다. 이 연례행사는 아프리카 출신 학생들이 고향의 삶을 대학 공동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제게는 정말 긴장되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문이 열리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투표를 통해 차기 국제학생조직 부회장으로 선정되었고, 지금 그 역할이 무척 기대됩니다.

가을 학기에는 기숙사에서 RA(Resident Adviser)를 할 계획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른 학생의 대학생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받았던 따뜻한 환영을 세인트 캐서린 대학 공동체에 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결정이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미국과 같은 대학체제를 유지하는 곳은 없으며, 이곳에서 제공하는 교양교육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이 될 것입니다. ■



Photo: Courtesy of Nyasha Kanganga

강강가(중앙)가 세인트 캐서린 대학 국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라 호프(좌) 및 국제입학을 담당하는 에이미 소스텐슨과 함께 서 있습니다.

## “환상적인 경험”

ARNAB BASU

Home Country: India

Graduate Student In Entertainment Technology at  
Carnegie Mellon, Pittsburgh, Pennsylvania

인도 벵갈로어에 위치한 미국 교육재단(U.S. Educational Foundation)은 제가 미국 대학을 지원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질문을 해도 빠트리지 않고 답변 해 주셨으며, 입학절차, 비자신청, 관련 여행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최신 중요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personal statement)를 준비할 때 주신 도움은 입학승인을 받는데도 매우 소중했지만, 스스로 설정한 직업관련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쌓아주었습니다.

프로그램 덕분에 저는 제가 진출하려는 산업에서 환상적인 직접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나 패널에 참여할 수 있었고 개발 스튜디오를 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커리큘럼이 유연해서 제 관심에 맞춰 특정 과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포괄적인 집중과정을 통해 학부 공부의 토대를 쌓는데 도움을 얻었습니다. 인턴쉽 참여 관점에서도 제 프로그램은 중요한 많은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사실, 인턴쉽은 그 자체가 훌륭한 학습 기회인 동시에 미래에 일을 하고싶은 조직에 첫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Photo Courtesy of Arnab Basu

많은 동기들이 학교에 오기 전 전문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환경에 속하게 됨으로써 적절한 업무경험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우수한 개인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나란히 노력하는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매 학기 라이브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우리는 엄청난 책임감을 요구하는 전문적 품질의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준비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저는 학생의 관심사항과 기술에 근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개별 학생의 진로 설정을 세심하게 도와주는 교수진에게 교육 받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은 국제학생 공동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가끔 국제 음식축제가 열리는데, 매년 축제 주제를 세계 특정 지역과 연관 짓습니다. 축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이자 다양한 국가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미국인들과 교류하는 것 또한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학업 환경에서 미국인들이 직업관련 목표에 집중하고 그 목표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섞여 생활하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미국에 첫 발을 디디는 학생들은 첫 날부터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에 흠뻑 젖어 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 할 각오도 되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 더, 요리를 배우세요! 새 친구를 사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엄청난 기회”

PAVEL REPYEUSKI

Home Country: Belarus

Former Undergraduate at Ithaca College, New York

Non-degree Study of Law

고멜(Gomel)에 위치한 EducationUSA 센터는 저에게 매우 유용한 존재였습니다. 다양한 교육기회에 대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국제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조언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기들이 서로 연락을 유지하며 현지 활동 및 프로젝트를 조직하는데 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사고방식에 자유를 부여하고 현대세계의 많은 사안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키우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미국 교육 자체도 매우 유용하였지만,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소중했던 경험은 다음 사항들이었습니다.

- **대학 캠퍼스 생활:** 미국인 및 기타 국제 학생들과 캠퍼스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 참여:**

AIDS Quilt 캠퍼스 추진에

동참함으로써 세계적 사안인

AIDS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원봉사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인턴쉽:** 뉴욕에 위치한 UN 본부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전반적인 국제조직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와 인간 가치 증진을 위한 국제조직 역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벨라루스에 UN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를 조직하고 자원봉사 활동과 공동체 봉사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타카 대학(Ithaca College)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 저를 캠퍼스까지 안내해 주는 한편, 여러 문제를 해결 해주고 제가 필요할 때 직접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멘토까지 지정 해 주었습니다.

필기시험을 볼 때는 교수들이 국제 학생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법오류나 스펠링 실수보다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적절한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문화적, 사회적 지원 또한 매우 훌륭했습니다. 방학 중에도 캠퍼스 생활을 계속하는 외국 학생들을 위해 대학측은 다양한 일일 여행을 계획해 주었고 겨울 연휴 때는 우리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호스트 가정을 찾아주었습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미국 문화 뿐 아니라 미국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제 이해의 폭이 한층 넓어 졌습니다. 미국 역사, 문학, 정부 과목을 수강하면서 민주주의 초석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미국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 생활한 경험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미국인들과 생활해보면, 그들과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타카 대학 과정을 마친 후,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입학하기 힘든 옥스퍼드 대학 Mjur(Magister Juris) 과정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준비 해 준 것은 미국에서 보낸 교환학생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맨체스터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향후 학자의 길을 가려 합니다. 처음 미국에서 공부할 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학을 위해 미국에 가는 국제 학생들에게 몇 가지 생존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충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유지하되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십시오.
- 고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인터넷을 사용하라고 하십시오. 인터넷은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이며 여러분이 고국과 단절되었다는 느낌을 갖지 않게 도와 줄 것입니다.
- 여러분이 받는 교육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십시오. 다양한 학회모임과 회의에 참여하고 인턴쉽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추진하십시오.
- 현지 친구들 및 호스트 가정과 친근한 관계를 구축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 즐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



Photo Courtesy of Pavel Repyeuski

# 사업여행가 정보

## 오늘날 미국에서 사업하기

다음 자료는 정부 및 기업 전문가들이 국제 사업여행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한 내용을 편집해서 실은 것입니다. 토론 영상은 웹사이트(<http://usinfo.state.gov/journals/itps/0905/ijpe/rntbl.ht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은 국제사회 고객, 협력업체, 해외직원과 얼굴을 마주하고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기업공동체 모두 이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또한 안보문제 때문에 자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심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국제여행 절차와 관련해 추진한 최초 보안 변경사항이 언제나 기대했던 것 만큼 부드럽게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9/11 테러 이후 4년 동안 실질적으로 엄청난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효과적 보안과 문화개방 사이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여행 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검사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직면한 나머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지도층과 긴밀한 공조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2005년 8월 미국 정부 및 기업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논의에 참여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Douglas Baker(Assistant Secretary of Commerce for Services), Elizabeth Dickson(Advisor for Global Immigration Services, Ingersoll-Rand), Janice Jacobs(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Visa Services), Randel Johnson(Vice President of the U.S. Chamber of Commerce), Michael Neifach(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Director of Immigration Policy). 그리고, Alexander Feldman (State Department Coordinator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가 진행을 맡아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제시합니다.

### 여행 추진을 위한 공조

**질문 (진행자):** 핵심 사안 중 하나인데, 미국 정부는 기업공동체와 어떠한 공조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Jacobs:** 9/11 테러 이후의 비자관련 조치를 흔히 국경안보와 문화개방 사이의 균형잡기라고

묘사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영사들이 매일 사업여행자 뿐 아니라 기타 모든 합법적인 미국 방문자의 비자를 처리하면서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다수의 촉진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사업여행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키는 전문을 각 영사관에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행 및 관광산업이 연간 미국 내에서 930억 달러를 창출한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사관에 연락해 어떤 사업여행 촉진 조치를 취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각 영사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묘사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곳은 현지 미국 상공회의소와 협력하고 어떤 곳은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직원이 신속하게 인터뷰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업여행자를 위해 별도의 라인을 둔 곳도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10월에 사업여행 추진을 위한 모범관행을 알리는 전문을 보냈습니다. 나아가, 예를 들어 긴급 인터뷰 예약이 필요한 여행자가 일찍 인터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각 영사관에 요청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비자 신청자를 위해 비자요건 정보를 확대 제공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웹사이트(<http://www.travel.state.gov>)를 업그레이드 하여 비자 인터뷰 관련 정보와 지침해야 할 서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http://travel.state.gov/visa/temp/wait/tempvisitors\\_wait.php](http://travel.state.gov/visa/temp/wait/tempvisitors_wait.php))에 예약 대기시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이 신속하게 해당 영사관을 찾아가 대기 시간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료적 사유나 중대한 사업계약이 있어서 지정된 예약보다 빨리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사관에 이런 사람들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 좌측부터 Janice Jacobs, Douglas Baker, Michael Neifach, Elizabeth Dickson, Randel Johnson, 사회자 Alexander Feldman.

장치를 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http://travel.state.gov/visa/temp/types/types\\_2664.html](http://travel.state.gov/visa/temp/types/types_2664.html)]

**질문:** 이 점과 관련해 정부와 기업간 중개자 역할을 하는 상무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Baker:** 9/11 테러 직후, 워싱턴에서 비자정책과 안보사안이 중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 문제가 미국 기업의 경제적 안정에 커다란 우려사항이 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아시듯이, 기업은 민간부문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서비스 분야에 8천 8백만, 제조업 분야에 1천 5백만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부에 손길을 뻗었습니다. 레거시 이민당국에 연락해 비자정책과 비자절차가 계속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긴급함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노트: 레거시(legacy) 이민당국이란 INS(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와 2001년 9월 11일 테러공격 이후 수립되었다가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병합된 기타 국경 통제기관을 지칭함].

워싱턴에 위치한 상공회의소 및 각국 수도에 위치한 AmCham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자 지연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우려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우리 상무부에 연락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상무부는 부서간 절차를 통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핵심 사안 중 하나는 비자발급 절차에 투명성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상공회의소는 이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Johnson:** 예전에는 국무부와 DHS를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공동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9/11 사태 이후 안보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이해했지만, 이 나라에 경제안보 또한 중요하며 DHS가 수립되면서 내 세운 사명 중에 경제안보도 있음을 주지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최근 와셔야 콜럼비아 보고타에서 일이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어 기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반면, 아직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호소하는 곳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기업간 교류가 다소 임시변통에 기반을 두고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기 워싱턴에서 체제를 정형화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고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좀 더 정식으로 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기업공동체 내에서는 불평하고 서한을 보내서 일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정형화되지 않은 절차보다는 누구에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 Elizabeth, 귀사가 직면하고 있는 일부 문제점과 우리가 인식해야 할 도전과제가 있으면 일부 말씀해 주십시오.

**Dickson:** 네. 지금까지 대기업 대표 자격으로 국무부와 다수의 대기업, 즉 *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 사이에 열린 많은 회의에 참여해 왔습니다. 우리는 DHS와 국무부가 저희 기업계와 정기적으로 만나 우리가 경험하는 일부 난관을 이해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국무부 웹사이트 [<http://www.travel.state.gov>]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웹사이트 정보가 계속해서 시의 적절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 실제 대기시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훌륭한 웹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영사관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 중 하나는, 시간이 급박한 상황에서 중대한 사업출장 필요성을 입증함으로써 비자 인터뷰를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영사들이 융통성을 다소 발휘하여 긴급한 사업여행 관련 인터뷰를 예약해주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질문:** 많은 사항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하지만, 아직까지 기업공동체와 협력하고 체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한 일부 도전과제가 있습니다.

## 미국 비자/입국 문제

**질문:** 두 번째로, 해외 또는 국제 기업간부가 미국에 입국하려 할 때 직면하는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Elizabeth, 앞서 이 사항에 대해 말씀하시려 한 것 같은데,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Dickson:** 가장 어려운 사안 중 하나는 절차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섯 명을 동일 서류를 지참해서 보내면 일부는 신속하게 통과하고 일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던 부분은 비자발급과 관련된 실수입니다. 수 년 전에는 신청자들이 아침 일찍 들어서 비자를 신청하고 오후에 다시 들어 여권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실수가 있으면 즉시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교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자 상호주의(reciprocity)가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재협상을 통해 12개월 다중입국 비자를 추진한 것이 큰 성공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절차 뿐 아니라, 미국 사업 여행가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절차까지 매우 용이해졌습니다. 모든 상호주의 협정이 재협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acobs:** 맞습니다.

**Dickson:** 그리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사관 직원들도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Jacobs:** 물론입니다.

**Dickson:** 국제적으로 사업여행도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Jacobs:** 상호주의 확장에 관해서는 언제나 다른 나라 정부와 협상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국가가 같은 범주에서 자국을 방문하는 미국인에게 동일 대우를 해 준다는 조건 하에서입니다. 사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국가가 미국인에게 동일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질문:** Randy,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Johnson:** 네, 제 생각에는 [비자발급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정확한 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신청자가 왜 비자가 거절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고 거절에 설명을 들어도 실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국무부가 여행자를 고객으로 인식하기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는 일부 여행자들이 영사들이 자신들을 적절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어쨌든 이러한 인식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감독역할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Jacobs:** 우리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영사관 직원들이 해당 대사관 뿐 아니라 미국 전체 또는 미국 정부 자체를 대표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관 직원에게 비자신청에 대한 답변이 승인이든 거절이든 상관없이, 신청자에게는 똑 같이 품위 있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 주지 시킵니다. 신청자들은 적절한 대우, 품위 있는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거절이라면 왜 비자가 거절되었는지 사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사관 관계자들은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가끔 신청자가 너무 긴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비자가 거절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신청자가 본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영사는 신청자가 이민을 의도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비자발급을 거절해야 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일관성 문제는 어떻습니까?

**Jacobs:** 하나 하나의 비자신청이 그 자체만의 개별 사항에 바탕을 두고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두 신청자가 같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라도, 각 신청자의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영사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영사들에게 필요한 모든 훈련과 툴을 제공하지만, 결국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영사의 몫입니다. 대부분 경우, 영사들이 적절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기에 실수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과 관련해 DHS가 맡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Neifach:** 법에 따르면, 솔직히 비자정책을 설정하는 일차 역할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현재 국무부가 비자를 발급하고 해외 영사 업무, 즉 증거력 결정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받은 사람이 미국에 도착하면 각 도착항에 근무하는 우리 검사관이 업무를 맡습니다.

방금 Janice가 설명한 많은 문제와 많은 사안을 직면합니다. 지나치게 긴장하는 신청자와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인터뷰 등의 문제 말입니다.

고객서비스는 우리 나라가 손님을 반기는 국가가 되기 위해 중대한 사항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검사관들이 모든 사람을 품위 있게 다루지 않을 경우 이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고객관계 측면에서 기업공동체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 마음을 열고 검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부문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파악할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다수의 훌륭한 사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사안을 해결하기 노력합니다. 기업계와 연결된 일종의 도관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Baker:** 미국 기업들이 되풀이해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가 거절 당할 때를 살펴보면, 실제 영사관 담당자들이 따르는 뚜렷한 패턴이 없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승인되고 어떤 사람은 거절 당하는데, 두 신청자 모두 상당히, 상당히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큰 회사는 이런 상황에서 기대거나 교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법무 상담원에게 연락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AmCham을 통해 인터뷰를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미국에 있는 상공회의소나 각국 수도에 있는 AmCham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의지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 국무부에 연락해 여기 워싱턴에 비자 촉진사무소를 여는 시험 프로그램에 동의하도록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합니다. 이 창구를 통해 [비자 거절과 관련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Jacobs:** 말씀하셨듯이, 시험 프로그램을 실제 시작하였습니다. 중국, 다시 말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만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만큼 중국과 중요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달에 이 프로그램을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회사 규모와는 상관없이 모든 미국 기업이 비자발급 정보를 원하거나 특정 신청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자 사무소에 새롭게 설치한 센터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businessvisa@state.gov]으로 센터에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직면한 난제가 지연과 투명성, 그리고 비자신청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절차가 가능한 부드럽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영사관 담당자와 DHS의 비자신청 검토를 도와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 사업비자 취득

**질문:** 다음으로, 미국 입국비자 취득과 관련된 실질적 요소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여행자는

*"Customer service is something that we have stressed... and we don't tolerate our inspectors not treating everybody with dignity."*

-Michael Neifach

어떤 정보를 알아야 하며 대사관 영사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할까를 논하겠습니다.

**Jacobs:** 앞서 말씀 드렸듯이, 비자 요건에 관한 포괄적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사들이 ...

**질문:**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세요.

**Jacobs:** 웹사이트는 <http://www.travel.state.gov>입니다.

영사들이 실제 찾는 것은

지원자와 지원자의 본국 내 상황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와 계획한 미국 여행에 대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인터뷰를 하러 올 때는 본국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국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를 지참해야 합니다.

**질문:** "관계(ties)"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Jacobs:** 신청자가 본국에 일자리가 있다는 증거이자 본국에 가족이 있다는 증거이며, 본국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간단히 말해, 미국을 잠시 방문한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어떤 것이 증거로 간주됩니까?

**Jacobs:** 고용주의 서한이나 급여명세서를 요청할 때도 있고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증서를 요구합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필수적인 서류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가 자신은 본국에 자리를 굳건히 잡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영사에게 제시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여행과 관련해 신청자의 신분이 무엇이며 왜 그 사람이 미국에 올 필요가 있는지, 미국에서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지 등을 설명한 서한이 있다면 매우,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본국과의 관계와 미국 방문목적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 비자발급 자격을 갖추는 일은 비교적 쉽습니다.

**Neifach:** DHS의 경우, 입국항에서 검사를 실시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토하는 사항도 동일합니다. 이야기에 일관성이 있는지, 미국에 온 목적은 무엇이며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을 국경에서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비자가 장기간 유효하고 [미국 재입국 시]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신청자는 다시 업데이트 된 정보를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여행자들이 여행할 때 이 서류들을 지참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Neifach:** 나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검사관들은 입국장에서 입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비자가 최초 발급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경우 입국에 도움이 되는 필요 정보를 지니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Dickson:** 그런 상황의 경우, 우리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경우 입국장 서한을 작성합니다. 우리가 진행해 온 것 중 하나는, 특히 우리 J-1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시사항 서한에서 영사에게 갈 때 지참해야 할 것들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떤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히 적은 목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Janice, 긴밀한 관계에 대해 논의할 때 저희 회사를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본국과의 관계를 입증해야 할 필요]를 다룬 설문조사를 이행했습니다. 특히 언어 문제가 있을 경우를 위시해, 전반적으로 이 요건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설문이었습니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많은 회사가 직원 보상패키지의 일환으로 주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입증할 수 있는 것[주택 소유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한을 통해 이들의 “관계”는 장기간 회사에 근무했다는 것이며 나머지 가족이 회사가 제공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Jacobs:** Ingersoll-Rand가 일 처리를 훌륭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회사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고 신청자가 무엇을 할 것이며 [여행] 목적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해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장비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라든지 몇몇 도시를 방문하는데 일정은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정보 모두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자도 자신의 여행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국장의 상황을 간단히 다시 설명 드리면, 사실 우리는 전자적으로 발급된 비자 정보를 공유합니다. 입국장 검사관들이 해당 비자가 우리가 발급한 비자가 맞으며 합법적인 서류임을 매우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점이 여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Johnson:** 시칭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Provided that there is no question about the ties to the country and the purpose of the visit to the United States, it's relatively easy to qualify for the visa.”*  
-Janice Jacobs

것이 있습니다.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이 미국까지 먼 길을 왔지만, 입국장에서 거절 당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는 점입니다.

**Neifach:** 이런 일이 있으려면 그 사이에 전혀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Jacobs:** 비자가 발급된 후 새로운 정보가 형성되었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질문:** 많은 분들이 지문이나 손가락을 기계에 넣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선,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Jacobs:** 2002년 5월 의회를 통과한 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무부는 우리가 발급하는 비자에 생체인식 식별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생체인식 식별자(biometric identifiers)”라는 말 자체가 다소 모호하고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Jacobs:** 식별자란 기본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가락 두 개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멕시코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2004년 10월 26일까지 이 시스템을 전 세계에 배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00개 이상의 현지에 전달하기 위해 멕시코에 있는 것과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문과는 틀립니다. 조그마한 박스에 손가락을 스캔하는 것입니다. 비자 인터뷰에 30초 정도의 시간이 추가 될 뿐입니다. 상당히 빨리 처리되죠.

**질문:** 무슬림이나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Neifach:** 전혀 아닙니다.

**Jacobs:** 전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여행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해당 개인에게 다른 이름으로 발급된 비자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Neifach:** 입국장에 도착하면, 우리 [세관국경보호관]이 동일한 과정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US-VISIT 프로그램이] 해당 여행자가 비자를 발급 받은 당사자임을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용이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당 여행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본인이며 합법적인

용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 곧바로 통과되기 때문입니다.

**Jacobs:** 본국과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점과 미국에 오게 된 목적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Neifach:** US-VISIT 프로그램과 관련해,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에 대해 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육상 국경에서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경에서 큰 지체 없이 훌륭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상공회의소와 라레도[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텍사스 도시]같은 곳에서 많이 우려했는데 현재 이행방식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다.

**질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비자를 발급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며, 비자거절 사유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고 이의를 제기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이 필요할 때

**질문:** 마지막 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치면서, 미국 기업이 미국을 방문하려는 고객과 고객 직원을 위해 비자발급을 촉진하려면 어떤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비자가 거절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 일을 긴급히 처리해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Doug,** 해외 상무부 관계자에 대해 말씀 해 주십시오. 맡은 임무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비자관련 절차와 관련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Baker:** 해외 상무부(Foreign Commercial Service)를 통해 85개 국가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사관과 영사관 내에 위치합니다.

9/11 테러 이전에는 특정 비자 신청자에 대해 스폰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9/11 이후 법이 바뀌면서 불가능해 졌습니다. 비자 절차에 추가 개선을 이루면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모든 사업비자 신청자에게 가능한 서둘러서 지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업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더

*"I would encourage all business visa applicants to ... apply as early as they possibly can."* -Douglas Baker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자가 거절되거나 가능한 조기에 인터뷰를 받지 못할 경우, 지체하지 말고 워싱턴에 있는 상무부나 [해당 국가 내 미 대사관에 위치한] 현지 상무부에 연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 현지 상무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대해 아십니까?

**Baker:** 네, 상무부 웹사이트[<http://www.doc.gov>]에 접속한 다음, 해외 상무부(Foreign Commercial Service) 링크를 찾으시면 됩니다.

**Jacobs:** 신청자 비자승인 결정은 인터뷰를 담당하는 영사에게 달려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영사에게 많은 정보가 주어질수록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비자를 거절 당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비자심사를 맡은 현지 담당자가 거절한 모든 비자신청에 대해 수석 관리자가 재차 검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해당 관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인터뷰를 위해] 신청자를 다시 부릅니다.

신청자는 언제나 비자를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막는 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 정보가 빠져 있거나 환경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예를 들어 오늘 신청했다가 내일 또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자신의 신청이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신청자는 자유롭게 재신청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현지에서 내린 모든 신청사례를 모니터링 하고 거절 비율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같은 곳에 근무하는 두 명의 담당자 사이에 거절 비율이 현격히 차이 난다면 그 원인에 대해 조사합니다. 물론, 현지 관리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질문:** 비자가 거절된 원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Jacobs:** 물론입니다. 비자가 거절되면 법의 어느 섹션 때문에 거절되었는지 설명한 종이를 받게 됩니다. 214(b)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214(b)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Jacobs:** 214(b)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비자거절 사유입니다. 영사가 판단하기에, 신청자가 이민의 의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청자가 본국과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죠.

**질문:** 그렇다면,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가 추가로 준비되었다면, 재신청 할 만한 근거가 되겠군요.

하지만, 인터뷰를 받으러 온다고 해도 일종의 처리시간 같은 것이 있지 않나요? 사람들 인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Jacobs:** 인터뷰를 받고 나서 비자발급 승인을 받은 사람 중 97%가 당일 또는 인터뷰 후 48시간 내에 비자를 수령합니다.

추가 보안조사를 위해 워싱턴에 문의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적습니다. 2002년과 2003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급격한 개선을 이루어 [2차 심사 완료까지] 79일 소요되던 것이 지금은 14일로 줄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Neifach:** DHS와 국무부는 가능한 추가 개선을 위해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점검해야 할 사람들을 신속하게 점검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미 점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가 점검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Johnson:** Janice, 재신청과 관련해 질문 하겠습니까. 재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 전체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가요?

**Jacobs:** 네 그렇습니다.

**Johnson:** 수수료도 다시 지불합니까?

**Jacobs:** 맞습니다.

**Johnson:** 얼마 전에 제 자신이 러시아 대사관에 비자를 받기 위해 100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내부 절차 같은 것이 있어서 신청자가 “이봐요, 이 사람이 제대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 서류 봐 주십시오”라고 주장하고 재신청한 다음 신속하게 다른 사람이 살펴보게 할 수는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Jacobs:** 많은 포스트에서 그런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 신청자가 특정 횟수 비자를 거절 당할 경우, 예를 들어 2회 거절 당할 경우 재신청을 하면 3회째는 영사관 책임자가 신청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포스트마다 틀리고 영사관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질문:** 국무부 웹사이트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Jacobs:** 네.

**질문:** 그리고,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신청자들은 [그 차이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디가 정보를 얻기에

가장 적절한 곳인가요?

**Jacobs:** 우리 웹사이트(<http://www.travel.state.gov>)에 가시면, 비자를 처리하는 전 대사관과 영사관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포스트 개별 웹사이트에 긴급하게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절차를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그리고, 상무부 해외 서비스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업비자 신청자들을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까?

**Jacobs:** 네, 그렇습니다. 매우,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mCham에 등록된 사람의 경우 신속하게 비자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사관에 기업 담당자를 지정해 둔 곳도 있습니다. 회사는 이 담당자에게 연락해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각 포스트마다 약간씩 다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우리가 이민의도와 관련된 214(b)에 근거해 비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입니다. 사실, 9/11 테러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이 거절 비율이 조금 더 낮습니다.

다른 기관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 학생의 경우 이 학생이 실제로 학교에서 입학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이 모든 사실이 9/11 이후 한층 높은 비자 발급율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자승인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우리가 신청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조치를 취해왔다는 점입니다. 더 많은 신청자를 인터뷰하고 더 면밀하게 서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Moderator:** 훌륭한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 드리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논의 해 주셔서 또 감사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문이 열려있다는 사실과, 목적이 사업이든 유학이든 관광이든 상관없이 미국에 오는 해외 방문자를 우리가 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했던 도전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바라고, 일부 알려져 있는 오해는 말 그대로 오해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기업과 비자 신청자들이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미국에서 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 사업여행 경험담

### “문제 없이 입국하고 문제 없이 출국”

CARLOS VANNI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for Chile

Bac Florida Bank N.A.

Santiago, Chile



저는 칠레 담당 사업개발 매니저로서, 칠레 구매자에게 미국 은행융자를 보장함으로써 성장하는 미국 자본재 시장을 촉진하는 일을 합니다. 에너지, 환경, 운송 부문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저의 전문 분야입니다. 미국은 제 고객이 오늘날 고도의 경쟁 시장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 사업에도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사업의 본질적 특성 때문에 저는 일년에 두 세 번 정도 미국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이 있은 후, 미국 보안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해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공항 보안이 강화되면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제 경우에는 불편한 것이 최소 수준일 뿐입니다.

제가 발견한 주요 변화는 공항 보안강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항공 승객에게 한층 엄격한 보안조치를 적용하고 승객과 화물에 대한 검사가 더욱 철저해 졌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여행할 때는 입국 시 제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공항 보안검사대를 통과하면서 신발을 벗어달라는 요청을 받으며, 보안요원이 자주 신체 검열을 이행합니다. 제 화물은

보안 카메라를 통과하고 때로 보안요원이 가방을 수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안절차 때문에 저는 의식적으로 짐을 꾸릴 때 신중을 기합니다. 몇몇 경우에는 들고 다니는 가방에 넣어두는 소형 가위를 두고 와야 하지만, 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조치 때문에 줄이 조금 더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안검사 때문에 공항에서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으로서 단 한번도 적절치 못한 대우를 받거나 무례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방문목적과 체류기간에 대한 질문을 받을 뿐입니다. 저는 문제없이 입국하고 문제없이 출국합니다.

사업이행과 관련해, 9월 11일 테러 때문에 제가 크게 변경해야 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제 일은 테러공격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행되고 사업계획에도 아무런 변화를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제 벤처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9월 11일 공격으로 인해 미국을 여행할 때 느끼는 신변안전과 보안 느낌이 달라진 것도 전혀 아닙니다.

강화된 보안조치는 부담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큰 불편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즐거움입니다.

물론, 보안검사대를 통과하는데 예전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2시간 일찍 공항에 도착해야 하는 것은 있지만, 이런 변화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제 자신이 한층 안전해질 수 있다면 줄 서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것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보안강화는 미국이 자국민과 방문자 모두를 잠재적 테러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

## 안전 제고, 불편 최소화

JIMMY CHAN  
RJP Limited  
Hong Kong



중국 홍콩의 많은 사업가들이 그렇듯, 저 또한 제 수출입회사를 위해 가끔 국제 출장에 오르곤 합니다. 지난 5월, 사업상 접촉을 위해 일주일 동안 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홍콩에서 시카고로 가는 비행은 길었지만 편했고

시카고 시간으로 이른 아침, 아시아 시간으로 자정 무렵에 도착했습니다. 여권 통제구역으로 이동해 방문자 입국 카운터에 줄을 섰습니다. 제 앞에 30-40명 가량의 방문자가 있었기에 제 차례가 올 때까지 꽤 기다려야 했습니다.

방문자들이 일렬로 줄을 서고 두 명의 담당자가 각 방문자에게 적합한 카운터를 안내 해 주었습니다. 모든 일이 부드럽게 진행되었고 혼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구역에 배치된 보안요원 중에 한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경찰관 모습이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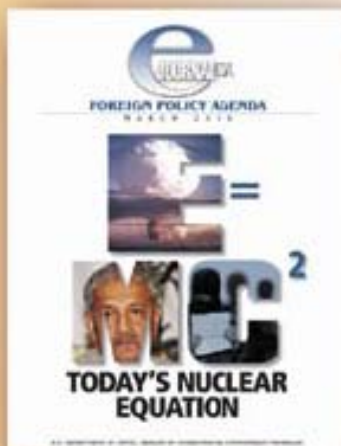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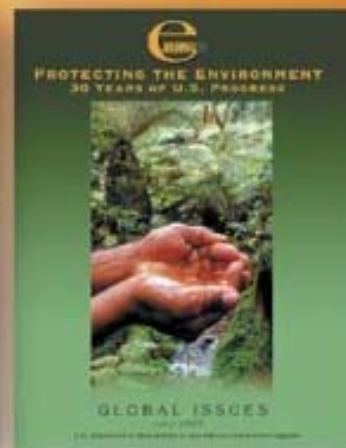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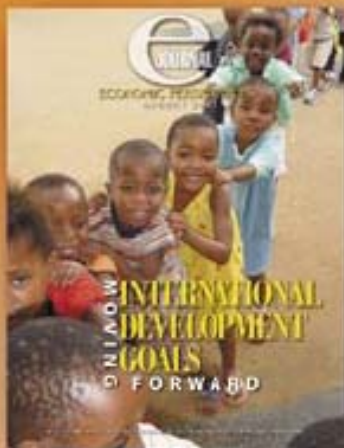
휴대폰을 꺼지 말라는 경고 표시가 보였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 규칙을 보고 다소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휴대폰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것이 보안 예방조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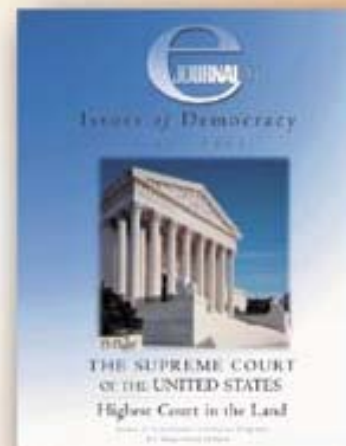
15분 정도 기다린 후, 제 차례가 되어 해당 이민관에게 가라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이민관은 질문을 몇 가지 하더니 제 답변에 만족한 듯, 오른손과 왼손 엄지 손가락을 하나씩 스크린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전자 지문 스캐닝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지시대로 따른 후, 이민관이 제 HKSAR(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on Region) 여권에 스탬프를 찍고 미국 입국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 절차 전체가 2분에서 3분 정도 소요되었고 저는 어떤 문제나 불편도 겪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갈 때는 지문 스캐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이 추가 조치가 제게는 최소한의 불편만을 야기할 뿐입니다. 미국 당국이 확보한 제 신변 데이터가 제 개인 또는 국가에 위해요소로 작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모든 방문자에게 이 데이터를 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국토안보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에 사는 중국 시민으로서, 저는 9/11 테러공격 이후 우리 또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자국 시민에게 안전하고 번영하는 국가로 남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제고를 위한 제 몫을 다하기 위해 제가 방문자로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최소일 뿐이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A  
MONTHLY  
JOURNAL  
OFFERED IN  
MULTIPLE  
LANGUAGES**



**REVIEW THE FULL LISTING OF TITLES AT**  
<http://usinfo.state.gov/journals/journals.htm>



**Information Resource Center  
Public Affairs Section  
U.S. Embassy Seoul**

10, Namyoung-dong  
Yongsan-gu  
Seoul 140-160  
Phone: (02) 397-4662  
Fax: (02) 795-3606  
Web Site: <http://seoul.usembassy.gov>